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25. 2.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25. 2.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목차



CHAPTER

1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06
2. 추진경과	13
3. 추진목적	14
4. 주요내용	15

CHAPTER

2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20
2. 운영체계	21
3. 평가지표	44

CHAPTER

3

평가지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48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62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86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107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131
6. 건강 및 안전	145

부록	161
----------	-----

1

CHAPTER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추진목적
4. 주요내용



1

추진배경

2024년 1월 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어린이집 평가가 평가의 본래 목적인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의미가 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시행 경과

200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재를 제시하고,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제로 작동하였다.¹⁾

제1차 평가인증(‘06~’09), 2차 지표와 3차 시범지표를 적용한 제2차 평가인증(‘10~’17.10.), 통합지표를 적용한 제3차 평가인증(‘17.11.~’19.6.11.)을 거치면서 제도의 운영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변화하는 현장의 수준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바람직한 실재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1) 참고 : 한국보육진흥원(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12년」, 서문희·양미선·이정원·김은기·원종욱·송신영(2013). 「어린이집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인증제도 중장기 개편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신희연·송신영(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표 1 | 평가인증제도 시행 경과

구분		내용
도입	2003. 4. ~ 1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 관련 연구용역 실시
	2004. 1.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범 운영	2005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사업 운영
1차 시행	2006 ~ 2009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2차 시행	2010 ~ 2017. 10.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2013. 9.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
	2014. 11.	3차 시범지표 적용
	2016. 6.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방안 발표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3차 시행	2017. 11. ~ 2019. 6.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통합지표 적용)

2006년 본격 시행 이후 해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증가하였다.

| 표 2 | 연도별 평가인증 통과율

단위: 개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참여확정(A)	3,525	4,956	6,605	8,446	8,847	12,899	13,328	13,408	13,036	11,821	11,682	11,747	11,210	6,285
인증통과(B)	2,804	4,181	5,464	7,303	6,899	11,331	11,506	12,746	12,618	11,322	11,152	11,362	10,813	5,780
통과율(B/A)	79.5	84.4	82.7	86.5	78.0	87.8	86.3	95.1	96.8	95.8	95.5	96.7	96.5	92.0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평가인증 이후 인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에는 3.6%에 불과하였던 인증 어린이집이 2009년 46.9%, 2014년 75.6%로 대폭 증가하였고, 평가인증 종료 월 기준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중 84.3%가 평가인증을 유지하였다.

| 표 3 | 연도별 평가인증 유지율

단위: 개소,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10.
전체(A)	28,367	29,233	30,856	33,499	35,550	38,021	39,842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37,362
인증유지(B)	622	1,060	4,500	9,683	16,686	21,154	24,856	27,357	30,955	33,050	33,496	32,795	32,630	31,625	31,504
유지율(B/A)	2.2	3.6	14.6	28.9	46.9	55.6	62.4	64.3	70.7	75.6	78.8	79.8	81.1	80.7	84.3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평가인증 평균점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신규인증과 재인증 어린이집을 비교한 결과 재인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신규인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의 등급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효과적이었으며,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인증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품질이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4 |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1차 지표)

단위: 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89.6	87.1	88.6	87.6	86.7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5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2차 지표)

단위: 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87.9	91.8	92.7	93.4	95.6	95.7	95.8	96.5
신규인증	87.7	91.5	92.7	92.9	94.8	95.2	95.2	96.0
재인증	90.2	92.2	92.7	94.0	96.1	96.0	96.1	96.8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6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평균점수(3차 시범지표)

단위: 점

구분	2015	2016	2017
전체	92.8	94.1	96.0
신규인증	91.6	92.6	94.6
재인증	93.5	94.7	96.5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 표 7 | 참여유형별 인증어린이집 등급분포(통합지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10.
전체	A등급	85.1	89.3	89.5
	B등급	12.8	9.6	9.6
	C등급	2.1	1.1	0.9
신규인증	A등급	81.1	88.2	88.9
	B등급	16.2	10.5	9.9
	C등급	2.6	1.4	1.2
재인증	A등급	86.1	89.7	89.8
	B등급	12.0	9.3	9.4
	C등급	2.0	1.0	0.8

주: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및 시행 경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과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지만,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인한 질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평가제 시행은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평가인증이 이루어졌던 어린이집 질 관리체계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표 8 | 평가제 추진경과

구분	내용
2018. 12. 11.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
2018. 12. 18. ~ 2019. 3. 31.	평가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실시
2019. 4. 15.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19. 6. 12.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평가제가 시행된 2019년 6월 이후 보육서비스 질 관리 사각지대 조기 해소를 위해 미인증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제 시행 초기인 2019년에는 5.5%에 불과하던 평가제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2020년 19.2%, 2021년 36.3%, 2022년 63.3%, 2023년 92.6%로 지속 증가하였고,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96.3%가 평가제를 유지하였다.

| 표 9 | 어린이집 평가 유지율

단위: 개소,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A)	37,371	35,352	33,246	30,923	28,954	27,387
평가유지(B)	2,070	6,802	12,069	19,571	26,809	26,380
유지율(B/A)	5.5	19.2	36.3	63.3	92.6	96.3

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평가제 참여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는 A등급 79.3%, B등급 18.6%, C등급 1.5%, D등급 0.6%로 나타났으며, 참여유형별 A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정기평가, 신규평가, 품질평가 어린이집 순으로 나타났다.

| 표 10 | 참여유형별 평가어린이집 등급분포

단위: 개소, %

구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26,380	20,908	(79.3)	4,901	(18.6)	404	(1.5)	167	(0.6)
신규평가	4,599	3,462	(75.3)	1,033	(22.5)	58	(1.3)	46	(1.0)
정기평가	21,263	17,080	(80.3)	3,726	(17.5)	339	(1.6)	118	(0.6)
품질평가	518	366	(70.7)	142	(27.4)	7	(1.4)	3	(0.6)

주: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함. (*개정전 법에 따른 평가제도 24.6월 현장평가까지 운영)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자료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제는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평가제는 3만 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시설·환경 등의 구조적 질을 평가하는 요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문서 중심의 평가 진행으로 어린이집에서 평가 서류 준비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2021년 평가체계 개편 방안 포럼을 시작으로, 평가제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 의견수렴 등이 진행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평가제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7월 3일부터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되었다.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는 '보육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평가 고유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추진경과

2021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운영체계와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였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운영체계 및 평가지표(안)에 대해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국 단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전 개정 방향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 점검하였다.

이후 202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 개정 평가제 시행을 위한 평가지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표 11 | 2024 개정 평가제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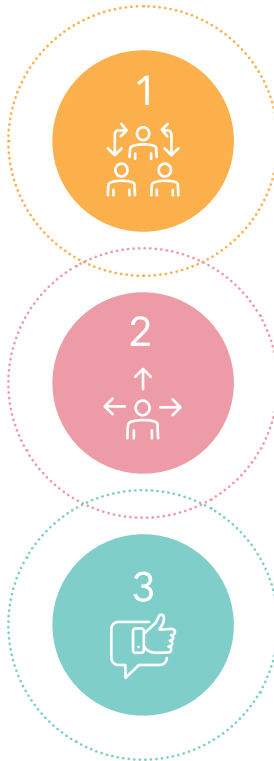
구분	내용
2021. 6. ~ 2021. 11.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방안 포럼 개최(4회)
2021. 9. ~ 2022. 9. 30.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방안 연구용역 실시
2022. 9. ~ 2022. 12. 16.	어린이집 평가 안내서, 해설서 및 평가결과서 개발 연구용역 실시
2022. 12.	의견수렴(간담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자체평가 시범사업 운영
2023. 4. ~ 2023. 7. 20.	어린이집 평가기준(루브릭) 안내서 개발 연구용역 실시
2023. 8. ~ 2023. 12.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운영
2023. 9. ~ 2023. 12. 8.	어린이집 평가결과 작성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실시
2024. 1. 2.	「영유아보육법」 개정, 공포
2024. 2. 29.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4. 7. 3.	2024 개정 평가제 시행



3

추진목적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의 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중심의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 참여를 통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둘째 평가 참여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직접 유도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과정을 진행 하며, 상시적인 자율 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평가제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4

주요내용



주요 특징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제의 주요 특징은 ‘과정적 질 중심으로의 평가 전환’,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 강화’로 볼 수 있다.

첫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과정적 질 중심의 평가로 전환한다.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개정하고, 관찰과 면담 위주로 평정 방식을 개선한다. 아울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결과서를 공표한다.

둘째,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질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현장평가 전에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후 연차별 자율관리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개정된 어린이집 평가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표 12 | 주요 특징 비교

구분	평가제	2024 개정 평가제
평가지표	4영역, 18지표, 59항목 - 정량평가(N/Y) - 구조적 지표(보육환경 등) > 과정적 지표(보육과정 등)	6영역, 15항목 - 정성평가(서술형) - 구조적 지표(보육환경 등) < 과정적 지표(보육과정 등)
평가절차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대상 통보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현장 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한국보육진흥원 지자체,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종합평가 위원회	평가대상 통보 → 자체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대상 통보 자체평가 현장 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한국보육진흥원 종합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평가등급 제공(A, B, C, D)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 제공
평가주기	A, B등급 3년 / C, D등급 2년	3년
사후관리	- 사후방문·확인점검 - 최하위 등급 조정	- 연차별 자율관리 및 컨설팅 - 재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시작된다. 대상 통보는 현장평가 3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대상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통보 익월부터 자체평가(2개월), 현장평가(1개월), 종합평가(1개월) 등의 과정이 4개월간 진행된다.

평가 후에는 어린이집 자율관리(연차별 자율관리 및 컨설팅)를 실시한다.



평가지표

보육의 질 향상 목적을 아동의 웰빙, 성장, 발달에 최우선으로 두고, 보육과정 운영 및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확대하였다. 개정 평가지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적이고 총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위를 분절하지 않고 연계하여 살핍으로써 종합적이고 통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상호작용 등의 과정적 질 관련 지표는 강화하고, 설치·인가 등의 구조적 질 관련 지표는 최소화하였다. 과정적 질 관련 지표는 국가 수준의 보육품질 기준에 적합한 평가지표로 수정·보완하였다. 영유아 권리 존중의 취지와 목적을 지표 전반에 반영하고, 보육과정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관련 평가지표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셋째, 문서 중심 평가에서 실제 보육과정 실행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 문서는 보육과정 관련 필수 문서 중심으로 간소화하였고, 평정 방식을 관찰 및 면담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2025년에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일부 개선하였고, 평가내용에 대한 보육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질문하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 표 13 | 평가지표 비교

평가제		2024 개정 평가제	
평가영역(4개)	평가지표(18개)	평가영역(6개)	평가항목(15개)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1-1. 영유아 권리 존중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1-3. 놀이 및 활동 지원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1-5. 보육과정 평가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2-3. 기관 운영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3. 건강·안전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2. 급·간식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4. 등·하원의 안전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4. 교직원	4-1. 원장의 리더십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2

CHAPTER

어린이집 평가 운영

1. 일반사항
2. 운영체계
3. 평가지표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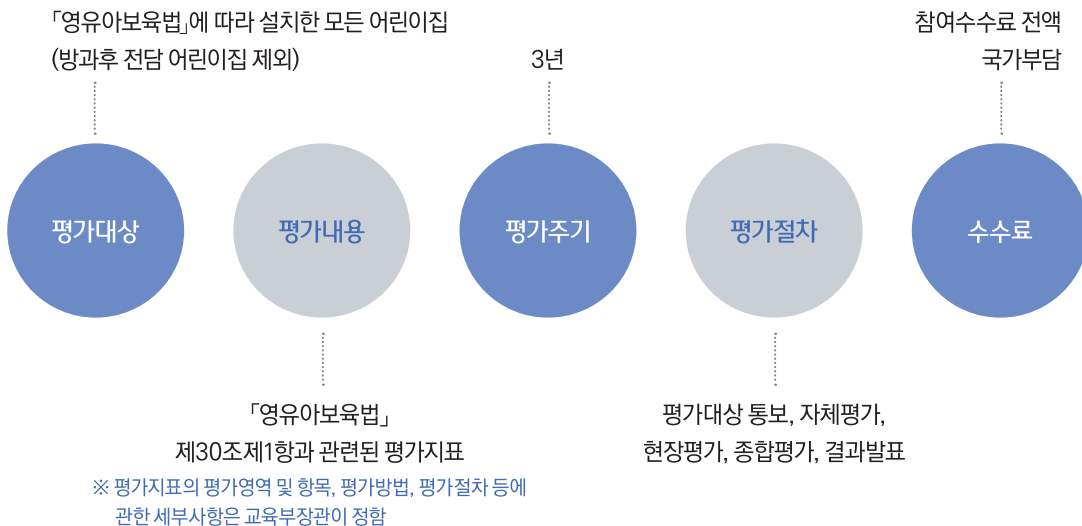
1) 기본 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2)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교육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3) 사업개요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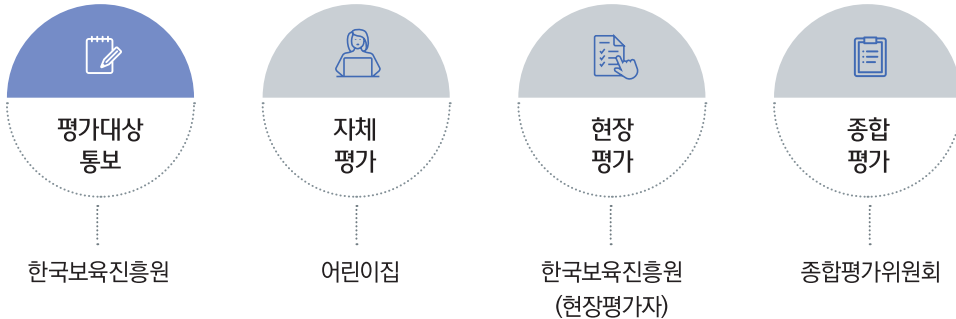
어린이집 평가절차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대상 통보로 시작되며, 자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결과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 그림 1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1) 평가대상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가) 평가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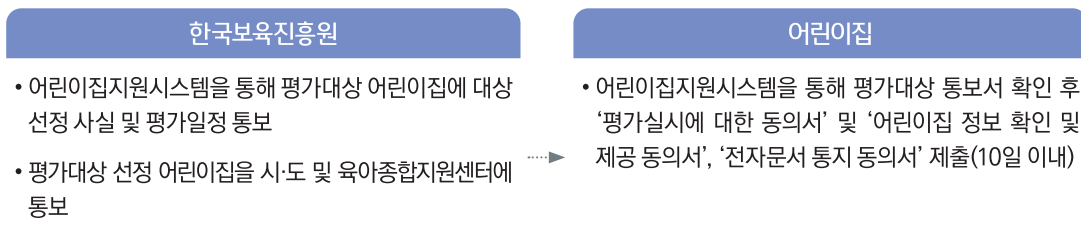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 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 ※ 평가주기: 3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차기 평가 도래 시기에 맞추어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 ※ 휴지, 현원 0명으로 차기 평가 시기가 경과한 어린이집은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신규 개원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함
 - 단,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은 기존의 평가 결과와 평가주기를 유지함

나) 평가대상 통보

- (통보시기) 평가대상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 실시한다.
- 통보절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 평가대상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 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전자문서통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또는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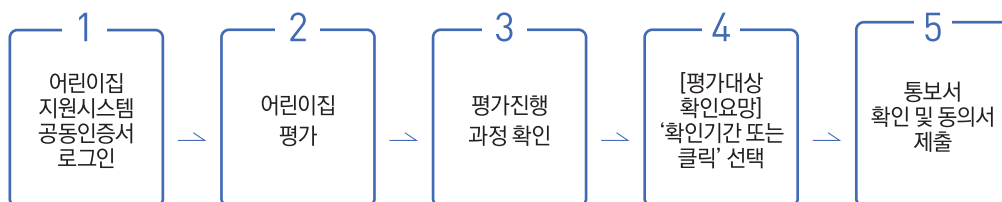
- 평가대상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평가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함

| 그림 2 | 평가대상 통보 업무 흐름도



평가대상 확인 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대상 확인요망] '확인기간 또는 클릭'을 선택하여 평가대상 통보서 확인 및 동의서 제출



- 평가대상 통보서 확인 및 동의서 제출 시 어린이집의 현재 상태가 '평가대상 확인완료'로 변경됨

○ 진행일정

평가기수	평가대상 통보	자체평가(2개월)	현장평가(1개월)	종합평가(1개월)	결과 발표
'25. 2기	'25. 2월	'25. 3월~4월	'25. 5월	'25. 6월	'25. 7월
'25. 3기	'25. 3월	'25. 4월~5월	'25. 6월	'25. 7월	'25. 8월
'25. 4기	'25. 4월	'25. 5월~6월	'25. 7월	'25. 8월	'25. 9월
'25. 5기	'25. 5월	'25. 6월~7월	'25. 8월	'25. 9월	'25. 10월
'25. 6기	'25. 6월	'25. 7월~8월	'25. 9월	'25. 10월	'25. 11월
'25. 7기	'25. 7월	'25. 8월~9월	'25. 10월	'25. 11월	'25. 12월
'25. 8기	'25. 8월	'25. 9월~10월	'25. 11월	'25. 12월	'26. 1월
'25. 9기	'25. 9월	'25. 10월~11월	'25. 12월	'26. 1월	'26. 2월
'25. 10기	'25. 10월	'25. 11월~12월	'26. 1월	'26. 2월	'26. 3월
'25. 11기	'25. 11월	'25. 12월~'26. 1월	'26. 2월	'26. 3월	'26. 4월

※ 평가 진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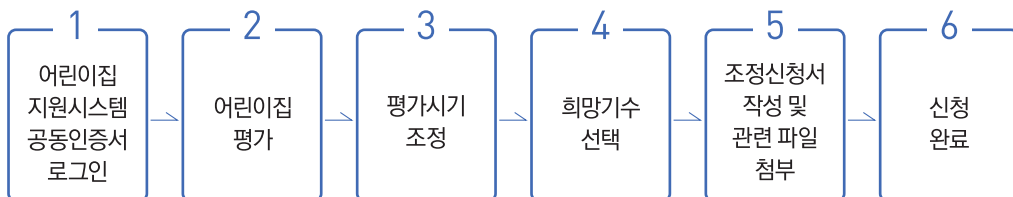
※ 결과발표는 사전통지를 기준으로 함

다)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당초 기수 기준 1~3개월 후로 평가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 평가시기 조정 희망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통보월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조정 신청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를 최종 확인 후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 단, 해당 월 평가 진행 개소 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 (인정 사유) 자체평가월로부터 현장평가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 도배·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평가시기 조정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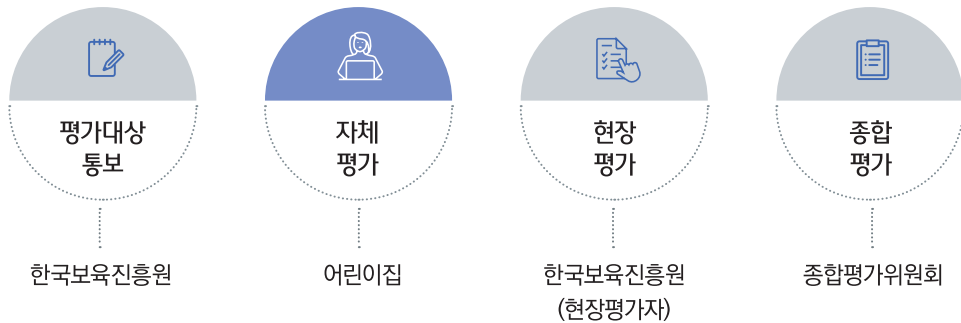
- (신청기간) 평가대상 통보 월 말일까지 조정신청 가능
- (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평가시기 조정] 메뉴에서 희망 기수를 선택하고, 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 (결과확인)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

2) 자체평가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대상으로 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평가대상으로 통보된 어린이집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으로 통보된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원장과 원아 부모만으로 2인 또는 3인 구성 가능

나) 자체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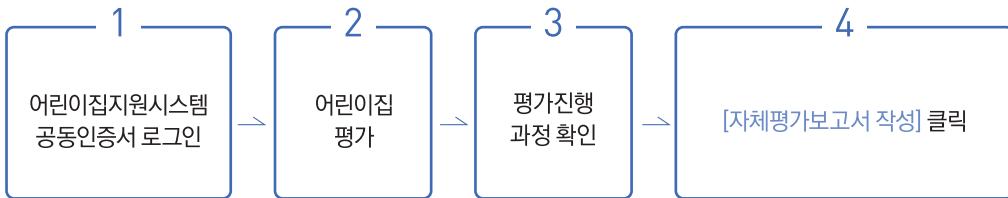
- 자체평가 위원들은 ‘자체평가 안내서’에 수록된 지표를 살펴보고, 평가항목별로 어린이집의 수준을 평가한다.
-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다)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자체평가보고서에 평가항목별로 어린이집의 수준 및 평가 근거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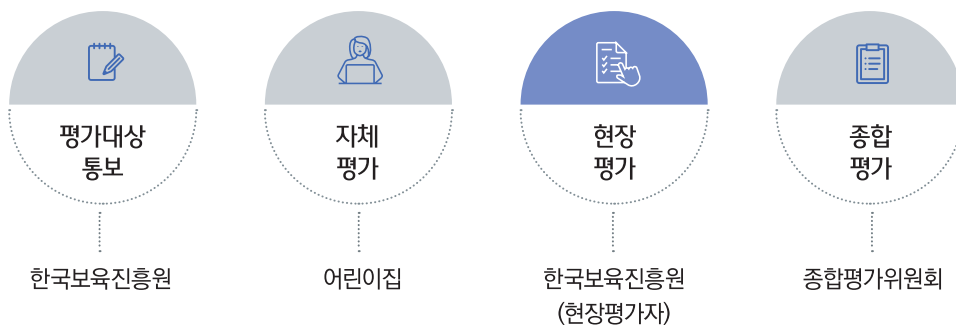
- 자체평가보고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클릭하여 입력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완료 이후에는 자체평가보고서 수정 불가하므로 최종 점검 후 [제출완료] 클릭하여야 함

3) 현장평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에 현장평가자를 파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가) 현장평가 일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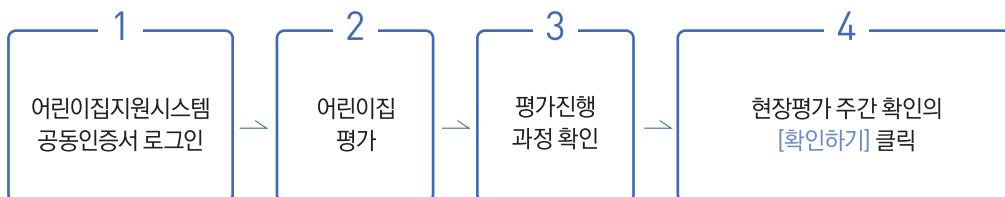
- 한국보육진흥원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장평가 직전월 말에 현장평가 주간을, 현장평가 주간 직전 주에 현장평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보수교육, 상(喪), 휴원령 등), 평가운영 상황 변동 등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주간·일자 조정 가능

※ 현장평가월 이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영유아 자원)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 진행이 가능하며, 현장평가 전 '현원 0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정이 중단됨

현장평가 일정 확인 방법

- 현장평가 일정 확인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 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
 - 현장평가 주간 확인 시기: 현장평가월 1주일 전
 - 현장평가일 확인 시기: 현장평가 주간 직전 주



나) 현장평가 실시

- 현장평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현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평가자가 방문하여 1일간 실시한다.
 - ※ 평가대상 통보일 말 현원을 기준으로 적용
 - ※ 현장평가 당일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 간 이해관계가 확인된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 현장평가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5:30~16:30임(필요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상황 및 영유아 재원사항,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를 시작함
 - 현장평가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 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함
 - 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이 각각 1개 반씩 포함되도록 무작위로 추첨하여 관찰반을 선정함
 - ※ 영아반 또는 유아반만 있는 경우 그중 2개 반을 선정하여 진행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사유 확인 후 현장평가자를 재파견함
(단, 전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2) 필요한 서류

① 원아명단

- 평가 당일, 현장평가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아명단을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경력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⑤ 평가지표 관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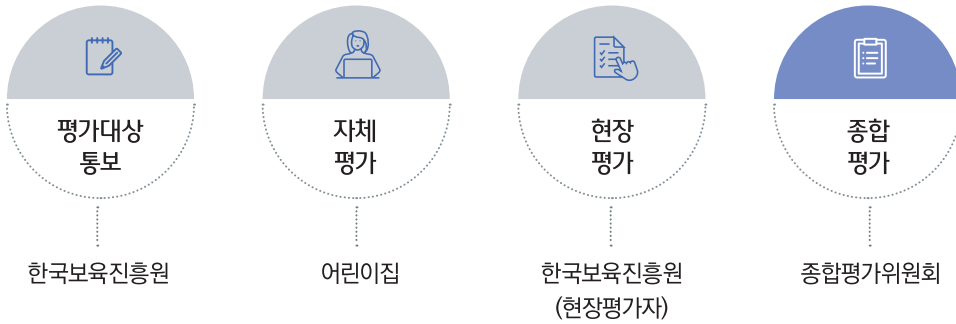
- 예 :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 ①, ②, ③은 현장평가자에게 제출하며 지표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기록(문서) 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
 - 기록(문서) 확인 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예: 현장평가월이 11월인 경우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은 10월 1일부터
현장평가 전일까지)
 - 그 외의 기록(문서) :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기록을
확인
- 현장평가일에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하거나 지원 활동을 할 수 없다.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평가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현장평가 상호확인서'에 서명함
 - ※ 현장평가 상호확인서 항목 :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 ※ PC고장,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진행
- 어린이집은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4
조제4의6호) 가능

4) 종합평가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진행한다.



가)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교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다.

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영역별 평가결과서 및 평가주기를 확정한다.

* 자체평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

- 평가과정에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심의하여 평가결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평가결과 반영 사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종합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 전까지 '평가결과 반영 사항' 발생 시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진행하여 평가결과서에 관련 내용 반영

다)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평가대상 통보월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어 수사, 재판 계류 중으로 관련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 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평가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 인가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현원 0명으로 운영이 중단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평가결과서에 반영하거나 평가주기를 조정한다.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 평가결과서에 반영

-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내용이 평가결과서에 반영된 경우, 재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함

• 인가변동사항

-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의 경우 과정중단 없이 평가 진행함
-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으로 평가가 중단된 경우 인가변동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대상 통보를 진행함
- 휴지 또는 현원 0명으로 평가가 중단된 경우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대상 통보를 진행함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통보일 이후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함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평가결과서에 반영 또는 평가주기를 조정함

5) 결과발표

가) 평가결과 사전통지

- 어린이집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말일 경*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한다.

* 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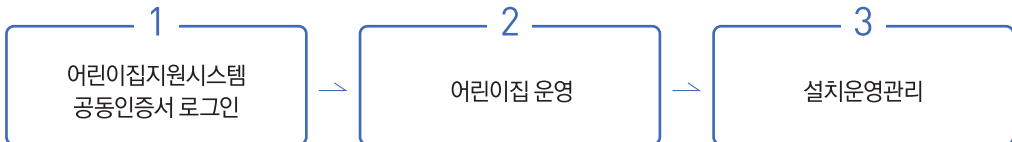
- 평가결과 사전통지 전

- 사전통지 전 어린이집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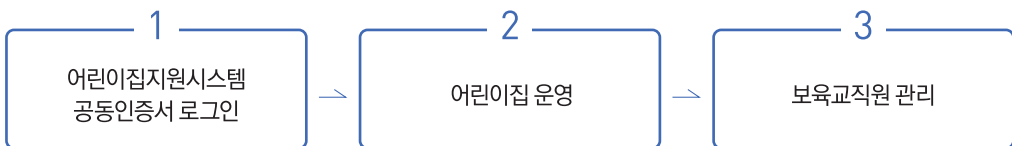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어린이집 정보는 어린이집 관리 및 결과발표, 평가 후 관리에 활용되므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야 함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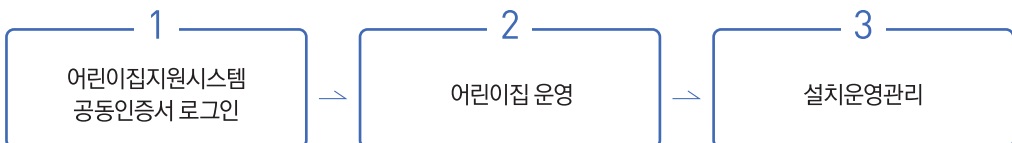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주소, 원장 및 대표자명 : 확인 후 수정은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요청



- 보육교직원 현황 : 보육교직원 변동사항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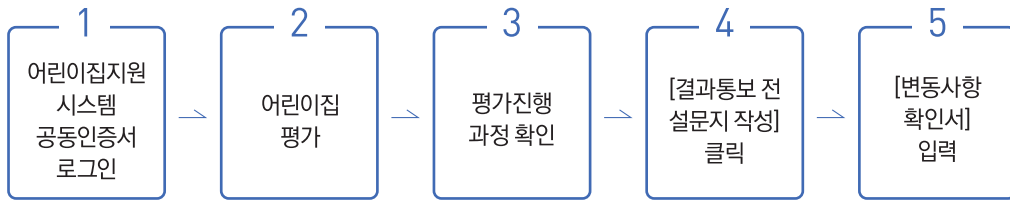
- 원장 휴대전화 번호 : 어린이집 원장의 휴대전화 번호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운영] - [설치운영관리] 메뉴에서 수정



- 변동사항 확인서 제출 및 평가제도 관련 설문 참여
 - 어린이집에서는 변동사항 확인서 및 평가제도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함

변동사항 확인서 제출 및 평가제도 관련 설문 참여

- 변동사항 확인서는 사전통지 전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결과통보 전 설문지 작성'을 클릭하여 입력
 - [변동사항 확인서] 평가대상 통보일 이후 행정처분,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여부 확인
 - ※ 변동사항 확인서 입력이 모두 완료되어야 평가결과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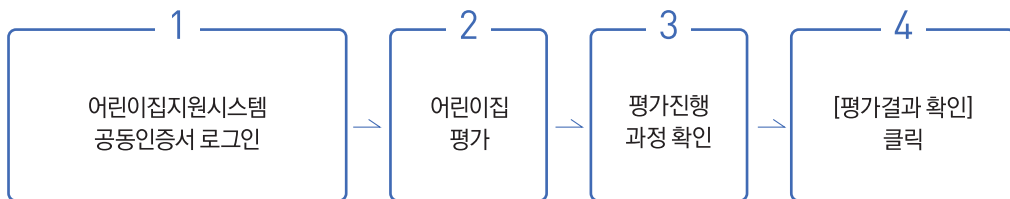


- ※ [변동사항 확인서] 작성 시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입력
- 평가제도 관련 설문은 업무연락으로 송부받은 링크를 통해 참여
 - 해당 설문은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용으로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사전통지서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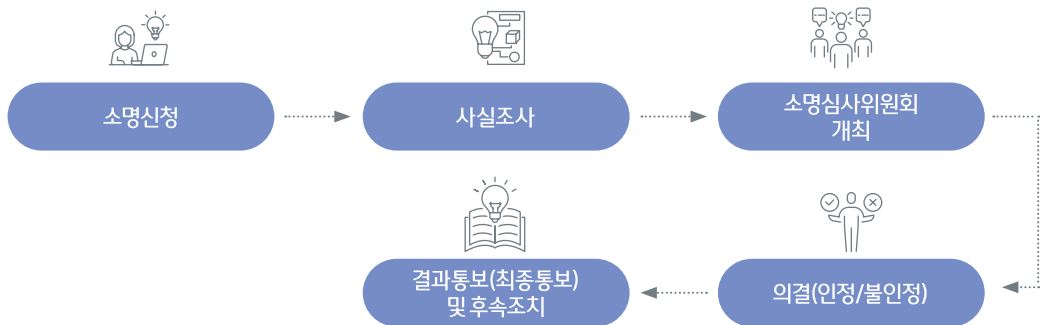
평가결과 사전통지서 확인 방법

-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결과 확인(평가결과 사전통지서)'을 클릭하여 확인



나) 소명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이 가능하다.
 - 어린이집은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함
- 소명심사위원회에서는 소명심사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종 평가결과서를 확정한다.
 - * 현장평가보고서, 어린이집 소명 자료 등
- 소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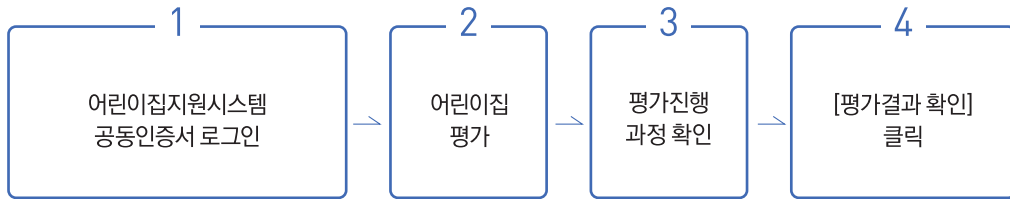
- 소명 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다) 평가결과 최종통보

-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말일경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한다.
 -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
- 평가결과 최종통보서 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평가주기는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월 1일부터 시작

평가결과 최종통보서 확인 방법

- 평가결과 최종통보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어린이집으로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결과 확인(평가결과 최종통보지서)'을 클릭하여 확인



라)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공표시기)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일
 - ※ 서술형 평가결과서 공표
 - (공표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 어린이집 평가 상태 |

구분	공표 내용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평가제 개편 시행('24.7.3.) 전 평가결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평가완료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평가 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

6) 평가 후 관리

가) 연차별 자율관리

- 어린이집은 평가 후 매년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 (대상) 평가를 받은 모든 어린이집
※ 당해 연도 평가대상 어린이집 제외
- (내용)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진단도구(조직운영, 보육과정 등)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스스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하여 개선점 도출 및 ‘계획 - 실천 - 평가 - 환류’의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연차별 자율관리는 ‘어린이집 자율관리 홈페이지(<https://www.kcpi.or.kr/step/>)’에서 진단 및 컨설팅 신청 등이 가능하다.
 - 당해 연도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율관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다.
※ 자율관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 컨설팅’ 신청

나) 자율관리 컨설팅

- 한국보육진흥원은 제공된 진단도구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자율적 질 개선을 지원한다.
- (대상)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
- (내용) 어린이집 자율관리를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이행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맞춤 지원(컨설팅)을 제공한다.
 - ‘자율관리 컨설팅’은 사전교육 및 안내, 현장방문, 온라인 컨설팅 등을 통해 진행된다.

어린이집 자율관리란?

상시적 보육의 질 개선 지원을 위해, ‘연차별 자율관리’와 ‘자율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

다) 보육품질 개선·관리 지원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맞춤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한다.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재평가 대상이 되는 사유

[재평가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고발 또는 고소되어, 검찰 처분(기소유예 등), 법원 판결(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포함) 확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고한 경우(관련 법 위반으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영유아보육법 상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포함)

※ 다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 제보·신고 이전에 이행한 경우에 한함),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인정될 경우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 ①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상기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함
※ 시·군·구는 상기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 등이 발생 시 재평가 대상임을 어린이집에 안내
-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함
- ③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중 사유를 확인하여 재평가 대상의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재평가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함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④ 교육부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을 재평가 대상으로 확정하고, 기존 평가결과의 효력을 중단함
 -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재평가 대상임을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재평가 대상을 통보하여 재평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함
- ⑤ 한국보육진흥원은 재평가 대상 확정일 익월에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다만, 운영정지로 어린이집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 재평가 진행 절차 및 평가지표는 본 평가와 동일함
 - ※ 평가 진행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재평가 진행 중인 경우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으로 공시

| 그림 3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절차 업무 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도 및 시군구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통보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확인 후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법조항, 행정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
↓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재평가대상 사전통지 후 재평가대상 통지 및 결과공표 변경	· 재평가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재평가대상 사전통지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재평가대상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재평가대상 확정내용 통보 · 기존 평가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대상으로 공표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통보	· 재평가대상 통지 익월 평가대상으로 통보

마) 평가주기 조정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재평가 이외에 감염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평가주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7)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 법적근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 대상임
-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평가에 관련된 서류(자체평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평가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교육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함
 - ※ 현장평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평가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을 받음
 - ※ 현장평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평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평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를 교육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함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 그림 4 |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이 평가 거부 시 관련 사항 안내 및 교육부에 보고	· 평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 교육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보고
↓		
교육부	 지자체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및 지자체 조치사항 통보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조치 사항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명단 확인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검토 및 시행	· (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확인 · (시군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검토 및 시행 후 교육부와 시도,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8) 경과조치

- (근거)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9898호, '24.1.2) 부칙 제3조
 -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아 그 평가 결과가 유효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으로 봄
 -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 발생 시,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

평가지표

1)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지표 6개 영역은 영역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영역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영역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영역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영역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영역 6. 건강 및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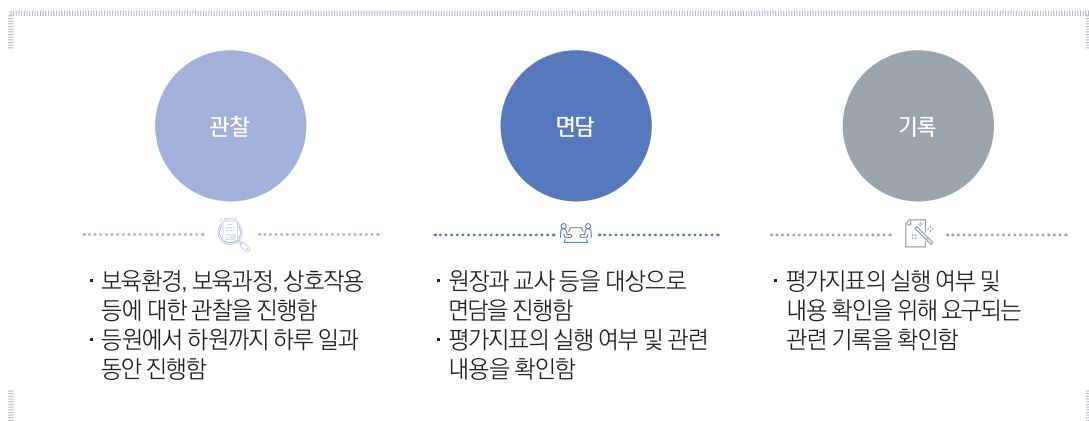
가) 구성 체계

평가지표는 “평가영역 → 평가항목” 순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4-2. 보육과정 평가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나) 평가방법

평가지표는 관찰, 면담,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3

CHAPTER

평가지표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6. 건강 및 안전

영역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개요

어린이집의 일과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영유아가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일과를 편성하고, 영유아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교사는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으로 일과를 운영하되, 정해진 순서대로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거나 미리 계획한 활동을 모두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하도록 한다. 교사는 등·하원, 식사와 간식, 배변, 낮잠 등에서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존중하며 영유아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역구성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일과의 충실한 운영

영유아는 일과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한다. 영유아는 놀이시간이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놀이에 몰입하면서 의미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시간을 하루 일과 중 가장 길게, 우선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교사는 놀이시간을 짧게 여러 번 제공하기보다는 긴 시간으로 편성하여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별 놀이시간 편성

- 0세 : 바깥놀이 주 3회, 30분 이상 포함하여 실내·외에서 매일 2시간~2시간 30분 이상
 - 1, 2세 : 매일 바깥놀이 30분 이상 포함하여 실내·외에서 2시간 30분 이상
 - 유아(3~5세) : 매일 바깥놀이 1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내·외에서 3시간 이상
- ※ 장애아전문 : 바깥놀이 주 1회 이상 장애유형, 장애정도, 발달수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교사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이 포함된 일과를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의 하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일과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와 일과 중 밖으로 나가거나 이동할 경우, 교사는 영아의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안을 때 차분하고 부드럽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영아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어느 정도 일정한 흐름으로 일과를 운영하되, 정해진 순서대로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거나 미리 계획한 활동을 모두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와 계절,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예를 들어, 일과에서 미세먼지, 날씨 등을 고려하여 바깥놀이를 실내 놀이로 편성·운영할 수 있고, 다른 날에 바깥놀이를 길게 편성할 수도 있다. 교사는 전날의 놀이 흐름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날의 일과를 다른 순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연령과 놀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교사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과를 조정할 수도 있다. 유아의 놀이 지원을 위하여 활동을 추가하거나, 계획된 활동을 미루거나, 혹은 관심을 가진 소수의 유아와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실내외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 하루 일과 운영 시간이 언제나 동일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 •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가 임의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개별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사례 1

1세 / 하루 일과 중 일부

안에서 밖에서 마음껏 놀이해요.

• 일상생활



간식(놀이 중 자유간식)

오전: 9:00~10:00 / 오후: 15:00~15:30

점심(11:40~12:40)

- 지영: 포도 껍질까지 먹는 것은 아직 어려워 보임
- 윤아, 지영: 평소보다 밥 양은 줄고 반찬을 많이 먹었음
- 수안, 윤아: 빨대 없이 우유 잘 마심

배변(개별적으로 배변)

- 수안, 정희

낮잠(12:40~14:50)

- 정희가 낮잠 깨는 것을 힘들어하여 조용한 곳에서 조금 더 누워있도록 하였고, 오후에도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실내 놀이 9:00-10:50, 15:00-16:00



이야기 공간

소리책, 다양한 그림책 등

표현하기 공간

나무 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습자지, 종이, 거울지, 라이트테이블

알아가기 공간

뚜껑, 투명통

구성하기 공간

와플블록, 벽돌블록, 해양동물 인형

되어보기 공간

크고 작은 자동차, 블록

- 이야기 공간에서 좋아하는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읽음
- 블록으로 길게 줄을 세우고, 그 위로 자동차를 굴리면서 놀이함.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수안이와 지영이가 더 길게 만들고 싶다며 블록을 가져와 길게 연결함
- 블록을 쌓거나 끼우면서 자동차 집을 만들

• 바깥놀이 10:50-11:40



- 어린이집 바깥놀이터에서 바깥놀이를 할 계획이었으나, 원장님이 산책을 지원해주셔서 형님반과 함께 공원으로 이동함. 가는 길에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도 하고 동네 산책도 함. 공원에서는 형님반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이함. 놀이 중에 돗자리에 앉아서 요구르트를 마시며 휴식도 취함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영아가 충분히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오전 실내 놀이를 9:00~10:50, 오후 실내 놀이를 15:00~16:00, 바깥놀이를 10:50~11:40으로 편성·운영하였다. 오전과 오후 간식도 영아의 놀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놀이 중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집 바깥놀이터에서 바깥놀이를 할 계획이었으나, 산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면서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공원에서 형님반과 함께 바깥놀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영아의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간식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였다. 정희가 낮잠 깨는 것을 힘들어하여 개별적으로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후에도 정희의 상태를 살피며 휴식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비가 와서 나가고 싶구나.

오전에 비가 내렸다. 일찍 등원한 은정아와 도아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과 놀이를 반복한다. 교사는 등원하는 영아들을 맞이하며 두 영아의 모습을 살펴본다. 오전 간식을 먹은 후 교사가 영아들에게 의견을 묻는다.

교사: 비가 오네. 밖에 나가 놀까?

은정: 와! 좋아. 밖에 나가요.

민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나가기 싫어! 오늘은 교실에서 놀면 안 돼?

지운: 나도 오늘은 나가기 싫어. 교실에서 놀고 싶어!



지섭아와 윤희는 교사의 물음에 대답 없이 놀이에 집중하고 있다. 소수의 영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바깥에 나가기 싫다고 한다.

교사: 바깥에서 놀이하는 것보다 안에서 놀고 싶은 사람이 많구나.

그런데 바깥놀이터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섭: 바깥놀이터에는 점심밥 먹고 나가요.

교사: 애들아, 지섭이가 지금은 교실에서 놀고 바깥놀이터에는 점심밥 먹고 나가서 놀자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

은정: (잠깐 생각하는 듯하다가 금세) 좋아!

교사: 그럼 너희 말대로 지금은 교실에서 놀고, 바깥놀이터에는 점심밥을 먹고 나가서 놀자.

영아들: 야호!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은정아와 도아가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영아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펴봤다. 계획한 시간보다 일찍 바깥놀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영아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많은 영아들이 지금은 실내에서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실내에서 놀이를 하고 싶다는 영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내 놀이를 지속하였고, 동시에 바깥놀이를 하고 싶은 영아의 의사표현도 존중하여 바깥놀이 시간을 점심 이후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영아들에게 지금 바깥놀이를 나가고 싶은 마음, 지금은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 등 영아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음을 공유하여, 영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더 놀고 싶어요!”

유아 2명은 그림을 색칠하고 있고, 8명은 독서, 보드게임, 목공놀이 등을 하고 있다. 교사는 색칠하고 자른 그림 인형을 들고 뛰어다니며 상상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다가간다.

교사: 윤이야, 진짜 꼼꼼하게 색칠했다. 다 칠할 때까지 집중하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

윤이: 네! 제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원래 잘해요!

교사: 윤이가 색칠한 인형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윤이: 집이요? 집을 만든다고요? 으하하~.

교사: 응! 네 생각은 어때?

윤이: 집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교사: 윤이가 집을 만들고 싶다면, 교실을 돌아보면서 무엇으로 집을 만들 수 있을지 찾아보자.

윤이는 나무로 집을 만들고 싶다며 만들기 공간으로 이동한다.

승준이와 동건이가 집을 만든다는 교사와 윤이의 대화를 가지며 함께 하고 싶다고 하였고, 윤성이도 “나는 로봇이 사는 집 만들어야지.” 하며 만들기 공간으로 이동한다. 유아들이 점점 모여 5명의 유아가 인형 집을 만든다.

정리 시간이 되어 교사가 놀이를 정리해야 함을 안내하자 많은 유아들이 더 놀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

윤성: 아…….

현주: 이거 더 하면 안 돼요?

현성: 이것만 하고요!

만들기 중인 유아들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유아들도 더 놀이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교사: 애들아, 교실에서 놀이를 더 하면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들 텐데 괜찮아?

현성: 괜찮아요!

동건: 더 놀고 싶어요!

교사는 유아들과 시계의 긴 바늘이 어디에 올 때까지 놀이를 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유아의 놀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오전 실내 놀이를 9시~11시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교실에서 놀이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였고, 교사는 전체 유아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내 놀이시간을 연장하여 융통성 있게 하루 일과를 운영하였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보육실에 나무, 상자, 블록 등의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를 제공하였고, 유아들은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하였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 굵기의 나무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나무의 모양과 크기 등을 탐색하고, 자신이 상상하는 집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윤이가 종이 인형을 손에 들고 뛰어다니는 놀이를 반복하는 것을 관찰하고, 윤이의 상상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종이 인형이 사는 집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윤이는 교사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집을 만들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교사는 윤이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상호작용하였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오늘 영유아들은 실내외에서 충분히 놀이를 하였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영유아가 더 놀이하고 싶다고 하지만 다음 일과(점심, 바깥놀이 등)로 놀이시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 일과를 운영하며 영유아의 요구(비언어적·언어적)를 살피었나요? 오늘 영유아는 어떤 요구를 하였나요?
- 영유아의 요구(비언어적·언어적)에 따라 일과를 변경한 적이 있나요? 영유아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등원과 하원,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간식, 점심, 낮잠, 휴식 등은 영유아의 신체 리듬과 속도, 기분, 상태 등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영유아가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영아는 어린이집에 오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던 신체 리듬과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개별 일과 운영은 더욱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어린이집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며 지원한다.

등원 시간에 교사는 영유아에게 다가가거나, 영유아를 바라보며 개별 영유아의 이름을 부르고 미소로 반갑게 맞이한다. 교사는 부모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와 급하게 헤어지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영유아의 마음을 공감해 준다.

식사와 간식 시간에 교사는 서두르지 않고, 영유아의 연령, 식습관, 식사 속도, 식사량 등을 고려하여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를 관찰하면서 식사와 간식 먹는 것을 도와줄 것인지, 영유아가 스스로 먹도록 기다릴 것인지를 판단하며 지원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화장실 사용 시 영유아의 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영아의 기저귀 갈이 시에는 영아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시도하고 다리 주무르기 등 영아의 신체를 자극하면서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진행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춰 편안하게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 교사는 개별적인 영유아의 낮잠 습관을 수용하고, 잠이 깬 영유아를 안아 주는 등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낮잠에서 일찍 깨어난 영유아는 한쪽에서 쉬거나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낮잠시간에 잠을 못 이루는 영유아에게는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지원한다.

하원 시간에 교사는 영유아가 안정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한다. 일부 영유아가 귀가를 시작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유아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지키도록 격려한다. 영아의 경우, 간단한 약속이 있음을 서서히 알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시도와 노력을 격려한다.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를 닦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요구와 신체 리듬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식사와 간식 시간에 영유아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배변 경험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편안하게 자거나 휴식하도록 지원하며, 따뜻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지키도록 격려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영유아가 등원하였는지 관심이 없거나 영유아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원 시에는 영유아의 하원 준비를 재촉한다. - 식사과 간식 시간에 음식을 강요하거나, 남기지 않게 하거나, 지나치게 조용히 먹게 하거나, 식사 예절을 강요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에 맞추어 먹도록 재촉하고 위협한다. -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하여 화장실을 가도록 강요한다. 또는 배변 처리 시 영유아에게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휴식(낮잠)하기, 개별 영유아의 요구와 상관없이 휴식(낮잠)을 강제하기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유아의 휴식(낮잠)시간을 운영한다. -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약속과 규칙을 교사가 임의로 결정 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적용한다.	-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에는 안정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영유아가 귀가하도록 한다. - 식사과 간식 시간에 영유아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영유아가 개별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자거나 휴식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한다. - 영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지키도록 격려한다.

사례 1

0세 / 오전 실내 놀이 및 간식 시간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교사 한 명은 보육실 문 앞에서 등원하는 영아를 맞이하고, 또 다른 교사는 간식 먹는 영아를 지원하고 있다. 은서는 간식 시간과 점심시간을 모두 좋아한다. 요즘 은서는 혼자서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러다 보니, 손으로 먹는 간식이 나올 때는 먹는 시간이 짧지만, 숟가락을 사용하는 간식이 나올 때는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교사는 은서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지만, 어느 정도 먹으면 교사가 마무리하곤 하였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은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숟가락을 사용하는 간식이 나오는 날에는, 은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손을 씻고 온 은서가 숟가락을 들고 간식을 먹기 시작하고, 교사는 은서의 앞에 앉는다.

교사: 은서가 오늘의 간식은 누룽지야~ 먹을까?

은서: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는 은서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본다.

간식의 양이 줄자 가벼워진 그릇이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려 한다.

교사: 은서야 간식 접시가 움직이네~. 도망가지 못하게 꼭 잡아줘.

은서는 간식 그릇을 꼭 잡고 손가락을 그릇 벽에 대고 누룽지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교사: 은서야 손가락을 그릇에 대니까 누룽지가 안 떨어진다.

은서: (자신이 한 것을 한번 더 교사에게 보여준다.)

얼마 후 영아 6명이 모두 등원하였고 한쪽에서는 간식을 다 먹은 영아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은서는 테이블에 남아서 간식을 끝까지 먹고, 교사는 옆에서 은서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린다.

평소 10분이면 간식을 다 먹던 은서가 오늘은 20분 동안 간식을 먹었다.

교사: 은서가 끝까지 혼자 다 먹었구나~. (손뼉을 치며) 잘했네~.

은서: (밝게 웃으며) 응.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이전에 은서가 스스로 먹고 싶어 하는 요구를 표현하여서, 간식 시간에 은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하고 지원하였다. 은서가 간식을 먹는 동안 서두르거나 먹여주지 않고, 은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간식을 먹기 전에 손 씻기를 안내하여 영아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은서의 그릇을 잡기 위한 손의 움직임, 손가락 잡는 방법을 바꾸는 손의 움직임, 누룽지를 흘리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그릇에 대고 뜨는 시도 등에 대해 언어적으로 반응하고, 이에 대한 은서의 반응을 살피면서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은서가 혼자서 손가락을 들고 간식을 먹고 싶어 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은서의 요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과에 쫓겨 교사가 먹여주었던 순간을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이후에 손가락으로 먹는 간식이 나올 때는 은서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오늘 누룽지 간식에 손가락이 제공되어 은서가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계획대로 지원하였다.

음~ 냄새도 맛있어.

윤호는 오므라이스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다.

교사: 윤호야, 오므라이스네. 와! 여기 노란색 계란도 있고 빨간색 케첩도 있다. 음~ 냄새도 맛있어. 한번 먹어 볼까!

(교사 식판에 있는 오므라이스를 한 숟가락 먹으며) 음~ 정말 맛있다.

석준: (오므라이스를 가리키며) 석준이는 이거 맛있어.

교사: 석준이는 오므라이스가 맛있구나.

석준: (큰 목소리로 웃으며) 응!

윤호는 교사와 석준이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으로 오므라이스를 뜨려고 두어 번 시도하지만 잘 떠지지 않는다. 교사는 윤호의 숟가락에 오므라이스를 조금 떠서 윤호 앞에 놓아준다. 윤호는 혼자서 숟가락을 들고 오므라이스를 먹는다.

교사: 와! 우리 윤호가 오므라이스를 먹었네. 맛이 어때?

윤호: (환하게 웃으며) 맛있어.

옆자리에서 석준이는 어묵볶음을 숟가락으로 집어먹으려고 한다.

교사: 석준아, 어묵볶음 맛있겠지? 어묵볶음을 포크로 콕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교사 식판에 있는 어묵볶음을 포크로 찍으며) 선생님처럼 이렇게 포크로 콕 찍어볼까?

석준: 포크! 포크!

(어묵볶음을 포크로 찍은 후 교사에게 보여 주고 입에 넣는다.)

교사: (웃으며) 포크로 찍어서 입에 싹 넣었구나.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윤호가 오므라이스 먹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음식의 색, 냄새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 주며 윤호가 오므라이스를 먹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윤호가 숟가락으로 음식 뜨는 것을 도와주고 맛이 어떤지 물어보면서,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살피며 지원하였다. 또한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석준이에게 포크로 찍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선생님, 저 왔어요!

수연이가 코끼리 인형을 들고 교실에 들어온다.

수연: 선생님, 저 왔어요! (자신의 인형을 보여주며) 이거 봐요. 내 인형이에요.

교사: (두 팔 벌려 안아주며) 수연이 왔어? 어머, 너무 귀엽다!

(전날 좋아하는 인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떠올리며) 어제 이야기했던 보틀이야?

수연: 아니요! 애는 캄순이예요.

교사: 그렇구나.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수연이랑 캄순이랑 오면서 비 맞지는 않았어?

수연: 네. 나는 우산 쓰고, 캄순이는 내가 꼭 안고 왔어요.

교사: 다행이네. 이제 가방 정리하고 손 씻을까?

수연: 네!

수연이는 가방을 서랍장에 넣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온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등원하는 수연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오늘의 날씨, 가정에서 가지고 온 인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아가 편안하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연이에게 등원 후 손을 씻도록 안내하여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어두워서 무서웠구나!

낮잠시간이 되자, 교사는 커튼을 치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예은이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울먹이기 시작하여 교사가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눈다.

교사: (눈물을 닦아주며) 예은아, 무슨 일이 있니?

예은: 음... 음... 어두워서 눈물이 났어요.

교사: 아, 어두워서 무서웠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예은이는 집에서 잘 때 어떻게 자니? 불 켜고 자니?

예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작은 불을 켜고 자요.

교사: 반짝반짝 불빛 나는 거?

예은: 네. 맞아요. 불 끄고 그거를 켜면 저 위에서 반짝거려요. 그러면 안 무서워요.

교사: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교실에는 없는데.....

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수납장을 살펴본다. 푸른빛을 희미하게 낼 수 있는 전자시계를 발견했다.

교사: 예은아, 어둡지 않을 정도로만 빛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니?

예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교사가 전자시계를 켜자 교실 안이 푸른빛을 띠며 조금 밝아졌다.

교사: 예은아, 이제 괜찮아?

교사의 물음에 예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에 눕는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예은이가 울먹이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예은이의 감정을 수용하였다. 어두워서 무서워하는 예은이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시계를 활용하여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예은이가 자신의 감정과 가정에서 잠자는 방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였다. 예은이가 느끼는 무서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교사가 예은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예은이에게 확인하며 소통하였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오늘 영유아를 어떻게 맞이했나요? 영유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 영유아가 식사나 간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나요?
- 식사와 간식 시간에 영유아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다려주나요?
- 기저귀 같이 시, 영아들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우리 반 영유아의 개별적인 배변 습관은 어떠한가요? 개별적 요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우리 반 영유아의 개별적인 낮잠 습관은 어떠한가요? 개별적 요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 하원 시 영유아의 어떤 부분을 살피고 있나요?

영역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개요

영유아의 놀이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끊어지며 새롭게 생성되어 가는 연속적 과정이며, 이는 곧 배움의 과정과 같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변형하며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원한다. 영유아가 안전하게 마음껏 뛰고 다양하게 놀이하며 자연 및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다. 교사는 놀이와 활동 자료가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적 자원임을 이해하며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영역 구성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은 영유아에게 가장 친숙한 놀이 환경이다. 교사는 영유아가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영유아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요구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공간을 구성하고, 영유아의 놀이에 따라 놀이 공간의 구성과 크기를 다채롭게 운영한다. 모든 공간을 같은 크기로 구성하거나 놀이자료장을 모두 벽면에 붙이는 등 일률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고정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놀이에 참여하는 영유아, 놀이자료의 활용, 놀이 흐름 등에 따라 영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하도록 놀이자료장이나 책상, 의자 등을 재배치하여 공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영아의 경우, 신체를 움직이며 탐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구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실 밖의 복도 등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놀이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영유아가 실내외에서 자연 및 계절, 날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시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자연을 접하는 경험은 매우 필요하다. 교사는 영유아가 생활 속에서 햇빛, 바람, 나무, 꽃, 흙, 물, 모래 등과 같은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고 상호작용한다. 특히 실외 공간은 영유아가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만나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이다. 교사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 활발한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모험과 도전을 하면서 궁금한 것을 찾아 자유롭게 탐색하는 놀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실외 자투리 공간, 텃밭, 통로, 작은 마당 등은 공간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놀이 환경으로 구성하며,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인근 공원과 놀이터 등도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간은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일과 중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시간 어린이집에 머무는 영유아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벽면은 영유아에게 좋은 배움의 공간이 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과 연계 없이 벽면을 꾸미거나, 모든 영유아가 똑같이 만든 작품만을 게시하기보다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 기록을 활용하여 보육실이나 복도, 실외 공간을 구성한다. 놀이와 활동 기록은 교사가 게시할 수도 있지만, 영유아와 교사가 함께, 혹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그림, 작품 등을 자유롭게 전시할 수도 있다. 벽면이나 천장 등에 그림, 사진, 작품

등을 전시하는 경험은 새로운 놀이를 활성화하고,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와 활동을 다시 보고 또래의 놀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공간 및 시설, 적합한 보조기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가 일과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활동 참여, 의사소통 등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장애영유아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 장애아전문 장애영유아 특성에 적절한 실내외 시설 및 설비, 보조기구

-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설치
- 시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점자블록,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내 다양한 높이의 대·소변기 설치,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 설치
- 피더시트, 기립보조 책상, 자세교정 의자, 앉아있는 채로 이동이 용이한 의자 등 보조기구 마련
- 비주얼 타이머, 너트로 만든 쓰기 등 활동 참여와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자료 구비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영유아의 놀이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제공한다. 영유아가 실내외에서 자연 및 계절, 날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마련한다.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보육실이나 복도, 실외 공간 등을 구성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공간 및 시설, 적합한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장애영유아가 일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활동 참여, 의사소통 등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정해진 영역의 성격에 맞게 놀이하도록 강요한다. • 서로의 놀이에 방해가 받아 영유아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는다. •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 발달수준에 적절한 시설,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영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 및 재구성한다. • 영유아가 실내외에서 자연 및 계절, 날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유아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 영유아의 놀이 혹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한다. •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 발달수준에 적절한 시설,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다.*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하여 평정

놀이에 따라 바뀌는 공간 ①

최근 영아들이 창밖을 보기 위해 창문 앞의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는 영아들이 넓은 곳에서 창밖을 볼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의 창문 앞에 있던 놀이자료장을 벽면으로 옮겼다. 우진이가 변형된 휴식 공간의 창틀을 잡고 일어서서 한참 동안 밖을 본다.

교사: (우진이 옆으로 다가가) 우진아, 밖을 보고 있구나.

우진: (밖에 있는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교사: 나무에 뭐가 있어? (나무를 자세히 보니 참새가 있다.) 짹 짹 참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구나.

우진: (참새가 날아가자 다시 밖에 있는 할아버지를 가리킨다.)

교사: 할아버지네.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네.

우진: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든다.)

교사: (같이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셨다.

교사: 할아버지가 못 보고 가셨네.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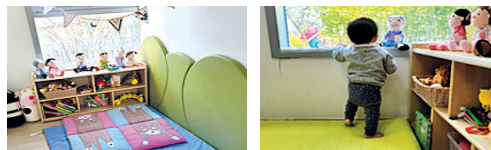
우진: (휴식 공간에 있는 할아버지 인형을 창틀에 올려놓으며 방긋 웃는다.)

교사: (할아버지 인형에게 인사하며) 우리 반에도 할아버지가 계셨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진: (할머니 인형을 가져다 놓으며 교사를 향해 방긋 웃는다.)

교사: (할머니 인형에게 인사하며) 할머니도 계시구나.

할머니, 안녕하세요.



놀이자료장 이동 전

▶ 놀이자료장 이동 후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여러 명의 영아들이 창밖을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래서 영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창밖을 볼 수 있도록 창문 앞에 있던 놀이자료장을 벽면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우진이가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우진이의 몸짓을 말로 표현하였다. 참새, 할아버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손을 흔드는 우진이의 비언어적 표현에 반응하였고, 교사의 말과 몸짓에 우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면서 상호작용하였다.

놀이가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공간

교사는 바깥놀이터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분필을 영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둔다. 성은이는 분필 8개를 양손에 쥐고 바닥에 앉아 분필을 일렬로 놓는다. 그중 빨간색 분필을 손에 쥐고 바닥에 끼적인다. 성은이는 다른 색 분필도 하나씩 들고 끼적이고 일렬로 놓기를 반복한다.

정빈이도 분필 2개를 양손에 쥐고 정자의 마룻바닥에 끼적인다. 그림이 그려지자 정빈이는 “우아!” 하고 감탄하며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만히 보다가 교사를 바라보며 싱긋 웃는다. 교사도 “우아! 정빈이가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렸네.” 하고 함께 놀라워하며 기뻐한다.

정빈이는 정자에서 모래 놀이터로 이동하였다. 모래에 쪼그려 앉아 분필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린다. 모래에는 색이 나타나지 않자, 장난감 자동차의 타이어에 그림을 그린다. 검은 자동차 타이어에 색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정빈이는 “이야!” 하고 말하며 또 끼적인다. 자동차 타이어에 그림을 그린 뒤 영아용 자동차로 이동하여 그 위에도 그림을 그린다.

정빈이는 자동차 손잡이를 손으로 잡았을 때, “뜨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을 자동차에서 빠르게 떼낸다. 정빈이는 다른 자동차로 이동하여 만져보더니 “뜨거”라고 이야기하며 손을 자동차에서 빠르게 떼고, 또 다른 자동차도 만져보더니 “뜨거”라고 한다. 그리고 시소로 이동하여 시소 손잡이를 잡고 “뜨거” 하고 말하고, 시소 의자도 만져보더니 “뜨거”라고 한다. 이번에는 미끄럼틀로 가서 미끄럼틀 나무 계단을 만지더니 “뜨거”라고 한다.

교사는 정빈이와 거리를 조금 두고 따라다니며 정빈이가 “뜨거”라고 말할 때마다, “자동차가 뜨겁지?”, “시소 의자도 뜨겁네.”, “미끄럼틀 계단도 뜨겁네.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 “해님이 뜨겁게 했나봐.” 하고 말하며 웃는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영아들이 분필로 자유롭게 끼적이는 공간, 호기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공간, 햇빛, 모래 등과 같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아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외 공간에 여러 가지 색의 분필을 제공하였다. 분필을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여, 영아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영아들이 놀이 상황에 따라 놀이자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정빈이는 분필로 정자와 모래, 타이어, 영아용 자동차에 끼적이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정빈이는 분필로 끼적이다가 자동차 손잡이가 뜨겁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사물을 촉감으로 느끼며 놀이를 이어갔다. 영아들이 자유롭게 끼적이며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 자동차 손잡이, 시소, 나무 계단 등의 사물을 감각으로 탐색하는 것과 같은 영아들의 배움을 이해하며 놀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정빈이가 사물을 만지면서 “뜨거”라는 말을 반복할 때, 정빈이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에 주의를 기울였다. 정빈이가 만지는 사물, 정빈이의 느낌, 왜 뜨거운지에 대한 상상 등을 언어로 표현하며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놀이에 따라 바뀌는 공간 ②

보육실은 유아들이 그림 동화책을 만들거나 종이 인형을 오려서 놀이하는 공간, 끼적이기 공간, 블록 놀이 공간, 종이 집과 종이 블록, 퍼즐 매트 등으로 놀이하는 공간, 역할놀이 공간,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들이 의자를 길게 줄지어 놓고 의자에 앉기 시작했다. 교사는 유아들의 놀이 공간 확보와 안전을 위해 책상을 벽 쪽으로 옮겨 준다. 줄지어 놓은 의자에 앉는 유아들도 있고, 벽 쪽으로 옮긴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유아들도 있다. 의자에 앉아있던 유아들이 교사에게 낮잠 매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교사는 며칠 전 유아들이 낮잠 매트로 '책상 집'을 꾸미던 것을 떠올렸다. 교사는 “낮잠 매트가 필요하구나.” 하며 수납장에서 낮잠 매트를 꺼내준다. 승희는 매트 한 장을 의자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자신의 머리 위에 모자처럼 쓴다. 하지만 매트가 자꾸 머리에서 미끄러져 내려간다.

병수: 너 지금 뭐 해?

승희: 으응, 이거 자동차야.

병수: 자동차? 하하, 나도 해볼래.

병수도 승희처럼 매트를 가져와 머리 위에 쓴다. 유아들은 머리 위에 매트를 고정시키려고 하지만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다. 교사는 의자 두 개의 등받이를 마주 보게 하고 그 사이 공간 위에 매트를 올려 지붕처럼 만들어 줬다. 승희와 병수가 그 공간에서 자동차 놀이를 한다.

승희와 병수가 다른 놀이 공간으로 이동하자, 나정이가 매트에 관심을 보인다.

나정: 우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텐트예요? 텐트! 애들아, 선생님이 텐트 만들어 주셨어!

나정이의 말을 듣고 준희가 다가와 들어가려고 한다.



나정: 안 돼! 여기 좁아. 나중에 들어와. 하지 마!

나정이는 들어오려고 하는 준희를 막으려고 하고, 준희는 계속해서 머리로 친구를 밀며 들어가려고 한다.

교사: 준희도 텐트에 들어가고 싶구나. 나정이가 있는 곳은 좁아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네.
선생님과 다른 텐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때?

준희는 교사의 말을 듣고 나정이의 텐트에서 나왔다. 교사와 준희, 그리고 몇몇 유아들이 모여 의자를 연결하고 그 위에 매트를 올려 공간을 만들었다. 유아들은 매트를 덮은 의자 공간을 텐트, 비행기, 버스로 바꾸어가며 놀이를 한다. 그리고 책상 밑의 공간은 집 같다고 하며 휴식을 취한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유아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실의 공간(그림 동화책을 만들거나 종이 인형을 오려서 놀이하는 공간, 끼적이기 공간, 블록 놀이 공간, 종이 집과 종이 블록, 퍼즐 매트 등으로 놀이하는 공간, 역할놀이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유아들이 자신의 그림이나 작품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 공간은 벽면과 창에 마련해 주었다. 유아들이 의자를 길게 줄지어 놓고 놀이하는 것을 관찰하고,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 책상을 벽으로 옮겨 놀이 공간을 재구성하였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유아들이 의자를 길게 줄지어 놓는 놀이를 하면서 놀이자료로 낮잠 매트를 요청하였다. 교사는 유아들이 낮잠 매트로 집을 만들었던 이전 놀이 경험을 떠올렸다. 오늘은 유아들이 매트로 또 어떤 놀이를 할까 기대하며 놀이자료(낮잠 매트)를 제공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유아들은 의자를 길게 줄지어 놓고 교사에게 낮잠 매트를 요청하는 등 자발적·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였다. 공간을 탐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상상하는 유아들의 배움을 이해하며 지켜보았다. 유아들이 놀이를 하다가 낮잠 매트를 달라고 했을 때, 유아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매트를 제공하였고, 매트를 가지고 어떻게 놀이하는지 살피었다. 매트로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승희와 병수의 요구, 매트로 만든 텐트에 들어가고 싶은 준희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지원하였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나정이를 밀며 텐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준희와 공간이 좁아서 준희가 들어오는 것이 싫은 나정이의 마음을 인정하며,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마음껏 상상하는 공간

유아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삽으로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 교사가 “우아! 모래 구덩이를 아주 깊게 팠네. 어떻게 이렇게 깊이 팔 수 있지?”라고 말하자, 민주가 “우리가 삽으로 팠어요. 아휴, 힘들어.” 하며 계속 판다. 유아들이 구덩이 파기를 멈추고 구덩이 속에 물을 채워 넣기 시작한다.

교사가 “그런데 구덩이에 물을 왜 넣어? 뭘 만드는 거니?”라고 물으니, 채연이가 “이건 함정이에요.”라고 한다. 교사가 “함정? 이 함정에 빠지면 아주 깊숙해서 빠져나오지 못 하겠는 걸.” 하고 말하자, 채연이는 “그래서 빠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라고 말하며 모래 파기와 물 붓기를 반복한다.

잠시 후 민주가 모래 구덩이의 물과 모래를 휘저으며 “여기는 죽을 만드는 공장이예요. 모래가 쌀이에요.”라고 한다. 교사는 “어머, 조금 전에는 함정이었었는데, 이젠 죽을 끓이는 공장이 되었네. 함정이 그릇처럼 움푹 파여서 죽을 끓이는 솥으로 사용해도 되는구나.”라고 하자 민주와 시원, 채연이가 서로 마주 보며 웃는다.

시원이는 “여기 노란 게 있으면 저어야 해요.” 하며 긴 막대기로 모래 구덩이의 물과 모래를 휘젓는다. 물과 모래가 혼합되면서 누런 흙 거품이 생겼다. 시원이는 “아! 여기 노란 게 있으면 안되는데.” 하며 흙 거품을 건져내기 위해 흙탕물 속에 손을 담근다. 그 순간 시원이가 큰 소리로 “아! 뜨거워!”

라고 외치며 손을 꺼낸다. 교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뜨거워?” 하고 묻자, 시원이는 너스레웃음을 지으며 “죽이라서 뜨겁네요.”라고 한다. 옆에 있던 채연이도 “선생님, 이건 죽이라서 뜨거워요.”라고 말하며 물과 모래를 휘젓는다.

교사가 “음. 이 죽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어?” 하고 묻자, 시원이가 “물이랑 흙이 들어가요.”라고 한다. 채연이는 “흙 마을한테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지금이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라고 한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유아들이 스스로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고, 물, 모래, 햇빛 등과 같은 자연을 탐색하며 자유롭게 상상하기를 즐길 수 있도록 실외 공간을 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놀이에 따라 놀이 공간을 만들고 바꾸면서 놀이를 이어갔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삽, 물뿌리개, 긴 막대기, 채, 주걱 등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모래를 파거나 모래와 물을 섞는 등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월하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유아들은 모래와 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모래 파기, 함정 만들기, 죽 만들기 등)으로 놀이를 이어갔다. 유아들이 자발적·주도적인 놀이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모래와 물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며 상상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또한 유아들이 만든 놀이 공간, 놀이 흐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였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놀이 공간 구성 및 운영



휴식을 위한 공간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지원이는 발달 지연을 보이는 유아다. 보육실에서 시청각적 자극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보육실 내 소음이 커지면 보육실을 배회하다가 밖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시청각적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는 지원이의 신체 리듬을 살피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조용한 공간에서 쉴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해 주었다.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구-활동 참여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송아는 활동이 바뀌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아이다. 점심을 먹기 위해 놀던 것을 “정리하자”라고 말하면 놀잇감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교사가 놀잇감을 바구니에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 송아는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다. 교사가 언어적으로 말하면서 시각적인 단서를 함께 제공해 주면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활동 간 전이가 필요할 때는 비주얼 타이머를 보여 주면서 정리하거나 기다리도록 하였다.

사랑이는 색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크레파스를 잡는 힘이 약해서 색칠을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크레파스를 잡고 색칠할 때, 교사가 사랑이의 손을 잡고 힘을 주면 교사의 손을 뿌리치기도 한다. 그래서 크레파스에 너트를 끼우고, 고무줄로 너트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해 주었다. 사랑이는 크레파스를 잡거나 쥐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면서 색칠하는 시간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보조기구-의사소통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은진이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린다. 그때마다 교사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면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을 멈추지만, 은진이의 요구 표현이 많아지고 다양해지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은진이는 사진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은진이가 자주 요구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다. 은진이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두 장의 사진(화장실, 물컵)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사진을 특정 자리(출입문 근처, 놀이하다가 물을 마시러 가는 공간)에 붙여놓고, 짜증을 내거나 요구를 표현하면 사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또는 “물 마시고 싶어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주었다. 은진이가 사진을 가리키거나 교사가 직접 사진을 가리키면서 “물 마시고 싶구나.”라고 말한 다음 정수기 앞으로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은진이에게 필요한 어휘를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언어재활사와 함께 어휘 목록을 수집하였다. 개별화교육계획(IEP)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은진이에게 필요한 어휘를 실제 사진 자료로 만들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관련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였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우리 반 영유아들은 어떤 놀이를 하고 있나요? 영유아들의 놀이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나요?
- 영유아의 놀이에 따라 공간을 변형하며 지원하고 있나요?
-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실 공간 외에 공용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어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요?
- 오늘 영유아는 햇빛, 나무, 꽃, 흙, 모래, 물 등과 같은 자연을 경험하였나요?
- 보육실 내 영유아가 원하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나 활동 결과물을 자유롭게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음성 언어로 말하기 어려운 영유아, 그림이나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영유아,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영유아의 대안적 표현을 존중하고 있나요? 일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에게 적절한 자료와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하고 있나요?



궁금해요

- Q** 어린이집 공간이 협소하여 놀이영역, 휴식영역을 어린이집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구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A** 어린이집 공간은 영유아의 놀고자 하는 요구와 쉬고자 하는 요구를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전체 공간에 놀이영역, 휴식영역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치된 놀이영역, 휴식영역은 영유아가 일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교사는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놀이자료는 영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와 도구 등을 포함한다. 바깥놀이를 하거나 산책하면서 발견하는 자연물, 빛과 그림자, 눈, 비, 구름 등과 같은 자연 현상, 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일상의 물건도 영유아의 배움을 위한 자료가 된다. 그 밖에 악기, 미술재료, 그림책, 재활용품 등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으며, 계절이나 행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시기에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에게 놀이자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상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물이다. 영유아는 다양한 놀이자료를 풍부하게 사용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탐색하고, 심미적인 경험을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확대되고 성취감을 얻는다.

교사는 놀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놀이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사가 지원한 놀이자료가 영유아의 놀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지원을 이어간다. 교사가 새로운 자료를 내어 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도나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교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교사는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한 방법으로 영유아를 이끌기보다는 자료가 어떻게 놀이의 매개가 되는지 지켜보고,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방법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영유아에게 인형을 제공할 때에도 장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형을 제공하는 등 성평등, 장애 인식, 다문화 등과 관련된 놀이자료를 제공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월하게 사용하며, 놀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자료를 옮기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유아가 찾아낸 새로운 놀이자료나 창의적인 놀이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료,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한 자료,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영유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영유아가 놀이 및 활동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쉽게 꺼내어 사용하기 어렵다. -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있다.	-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 영유아가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례 1

1세 / 실내 놀이시간

천으로 놀이해요.

지영이는 놀이자료장에 비치되어 있는 커다란 푸른색 천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앉아 있는 교사에게 다가온다. 교사가 “지영이 어디 있나?” 하니 지영이가 푸른색 천 밖으로 얼굴을 내밀며 웃는다. 동시에 교사는 “까꿍!” 하고 말하며 웃는다. 교사가 일어나 커다란 푸른색 천을 살랑살랑 흔들자 지영이가 천 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 위에서 펼쳐이는 천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뛰어다닌다.

윤성이가 다가와 푸른색 천을 잡고 흔든다. 교사가 “파도가 울렁이는 것 같네.”라고 하자 윤성이가 “물! 물!” 하고 말한다. 푸른색 천을 바닥에 내려놓자 지영이가 그 위를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다가 뛰기도 한다.

기범이가 푸른색 천 위에 앉는다. 그리고 양손을 좌우로 흔들며 푸른색 천을 휘젓고, 잠시 후 엎드려 누워서 양팔을 휘젓는다. 푸른색 천이 기범이 팔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인다. 교사는 “기범이가 팔을 휘저으며 물속에서 수영을 하네.”라고 말하자 기범이가 발도 함께 흔든다.

창가에서 혼자 자동차를 굴리며 놀이하던 지원이가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물고기 인형을 가지고 푸른색 천 위로 올라와 앉으며 교사를 바라본다. 교사는 “지원이도 물속에서 물고기들과



해엄치러 왔네.” 하며 푸른색 천을 흔들어 준다. 윤성이가 한 손에는 조개, 다른 한 손에는 상어를 쥐고 웅알이를 하며 교사에게 보여 준다. 교사는 “물속에 사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구나.” 하고 말한다. 지영이도 물고기를 잡고 마구 흔든다. 찬영이는 버스를 가지고 와서 “버스도 물에!” 하며 장난감 버스를 푸른색 천 위에 올려놓고 움직인다. 교사는 “버스도 물고기들과 친구가 되어 물속을 신나게 달리네.” 하자 찬영이가 교사를 바라보며 웃고, 기범이는 버스를 바라본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부드럽고 비치는 커다란 천, 다양한 인형과 장난감 자동차 등의 놀이자료를 제공하여 영아들이 천의 느낌을 몸으로 느끼고,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천의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천을 물로 상상하며 또래와 놀이를 공유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놀이 상황에 따라 놀잇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옮기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영아들이 커다란 천을 가지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놀이자료장과 책상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놀이 공간을 넓게 마련해 주었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영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며 주도하는 다양한 놀이(천 아래에서 뛰기, 천 흔들기, 천을 물로 상상하기, 천 위에 올라가 뛰기, 천 위에 앉거나 엎드리기, 천 위에서 인형과 자동차 움직이기 등)에서 영아들은 신체를 움직이고 천을 감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영아들이 천을 물로 상상하며 배우고 있음을 이해하며 영아들의 놀이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천을 파도로 상상하며 흔들어 주었으나, 윤성이가 “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천을 물로 상상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영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팔 다리를 휘젓거나 흔드는 영아의 움직임, 천 위로 물고기, 조개, 상어 인형을 가지고 오는 영아의 몸짓을 언어로 표현하였고, 버스도 물에 넣자는 찬영이의 상상을 존중하며 상호작용하였다.

풀고 늘이고 당길 수 있어요.

하은이가 놀이자료장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가져와 교사에게 내민다. 교사가 “선생님이 들고 있어?” 라고 묻자,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가 마스킹 테이프를 잡자, 하은이는 마스킹 테이프를 쪽쪽 잡아당기며 풀기 시작한다. 교사는 옆에 있던 서준이에게 테이프를 건네며, “서준아, 하은이 테이프 같이 잡아줄까?”하고 말한다. 서준이와 하은이가 테이프를 잡아당기며 놀이자, 다른 영아들이 다가와서 함께 테이프를 잡아당긴다.



하은이는 테이프를 길게 늘이기 위해서 점점 뒤로 가면서 테이프를 돌려 풀고, 서준이는 반대편에서 테이프를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도연이가 놀이자료장에 놓여있는 색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길게 풀자, 서준이와 희건이는 도연이가 길게 푼 테이프의 다른 쪽 끝을 잡고 테이프가 팽팽해지도록 잡아당긴다.



다음날 교사는 영아들이 테이프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과 끊지 않고 길게 늘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테이프를 끼운 봉을 창가에 달아 주었다. 영아들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쉽게 테이프를 풀어서 길게 늘이며 놀이를 했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아들이 익숙한 물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풍부하게 제공하였고,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영아들은 필요한 놀이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직접 찾아와서 놀이를 하였고, 놀이 상황에 따라 놀이자료를 자유롭게 옮기며 놀이하였다. 영아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마스킹 테이프를 풀고 당기면서 신체를 조절하고 익숙한 물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끼운 봉을 창가에 달아서 지원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영아들은 보육실에 비치된 마스킹 테이프를 풀거나 당기거나 놀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놀이하였다. 영아들이 마스킹 테이프를 놀이거나 당기면서 신체를 조절하고, 익숙한 물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하며,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마스킹 테이프를 가져와 내미는 하은이의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서준이에게 마스킹 테이프를 함께 잡아보라고 말하며 놀이 참여를 권하였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놀이하는 영아의 놀이 흐름을 기록하고, 영아들이 편리하게 마스킹 테이프를 풀고 당길 수 있도록 테이프를 끼운 봉을 창가에 설치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이거 젤리! 이건 주스!

보육실에는 유아들이 직접 색깔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스포이트, 주사기, 다양한 크기의 컵과 통 등의 도구가 비치되어 있다.

은성: (투명 컵에 색깔 물을 담는다. 색깔 물이 어느 정도 채워지자, 스포이트로 물방울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끝까지 채운다.)

이거 젤리!

교사: 젤리? 와!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젤리네요.

은성: 이건 주스!

하진: 이것도 주스야. 이것 봐봐, 주스.

교사: 맛있겠다. 그런데 주스에 둥둥 떠다니는 것(작은 병의 뚜껑)은 뭐예요?

하진: 얼음.

교사: 아, 얼음! 날이 더운데,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어요.

정섭: 물이 더 많이 필요해. 지금 자동차 목욕 중이야.

성만: 나도!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스포이트, 주사기, 다양한 크기의 컵과 통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파란색과 빨간색 물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두 가지 색으로도 혼합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색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후에는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색을 혼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유아들이 여러 색의 물감과 물을 종이컵에 넣고 혼합하며 놀이하는 것을 관찰하고, 색깔 물을 만들며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물을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다른 놀이를 하거나 이동하는 유아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교실 한쪽에 색깔 물 놀이 공간을 구성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은성, 하진, 정섭, 성민이는 색깔 물로 젤리와 주스를 만들거나 자동차 세차를 하며 주도적으로 놀이하였다.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색깔 물의 특성을 탐색하고 주스를 먹었던 경험이나 세차 경험을 극놀이로 표현하는 유아들의 배움을 이해하며 지켜보았다. 은성과 하진이가 자신들의 놀이에 교사를 초대했을 때,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면서 젤리와 주스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며 함께 상상놀이를 즐겼다.

신기해. 모두 다 색이 달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습자지와 물, 투명 플라스틱 통이 책상에 놓여 있다. 유아들은 세 가지 색의 습자지를 조합하여 직접 여러 가지 색을 만든다. 유아들은 습자지 수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을 실험하며 신기해한다. 자신이 만든 색깔 물을 친구들이 만든 것과 비교하며 모두 다 색이 다르다며 이야기한다. 교사는 유아들이 어떤 조합으로 색을 만들었는지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습자지 색과 같은 동그란 스티커를 제공한다. 유아들은 완성된 색깔 물을 투명 통에 담고, 뚜껑에 색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한 습자지와 같은 색 스티커를 수만큼 붙인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충분한 양의 색 습자지와 투명 플라스틱 통, 스포이트 등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색깔 물을 만들고 감상하며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였다. 유아들이 만든 색깔 물의 조합을 스스로 기록해 볼 수 있도록 색 스티커를 제공하였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유아들이 색 습자지와 물을 섞어 색깔 물 만드는 놀이를 좋아하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놀이자료장과 책상의 위치를 변경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주었다. 유아들이 만든 색깔 물을 자유롭게 창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이 색깔 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색 그림자를 관찰하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유아들은 습자지의 색과 양을 자유롭게 섞으면서 주도적으로 놀이하였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의 색이 모두 다름을 발견하며 신기해하였다. 유아들이 또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색깔 물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만들어진 색을 비교하며 배우고 있음을 이해하며 지켜보았다.

문어 다리가 좋아요!

민수는 스카프나 긴 끈 등을 흔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더위를 많이 탄다. 더우면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라 좀 더 시원한 환경에서 민수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민수가 자주 서 있는 선풍기 앞에 신문지를 길게 잘라서 붙여 주었고, 선풍기를 켜면 민수가 바람을 쐬면서 날리는 신문지로 놀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긴 물건을 좋아하는 민수가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통합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협의하면서 ‘여름 → 바다 → 긴 것 → 문어’를 연상하였고, 풍선으로 문어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민수가 문어를 손으로 치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천장에 매달아 주었다.

민수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흔드는 놀잇감을 좋아하는 민수를 위해 바구니에 여러 가지 색의 고무줄을 끈으로 달아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형 통 안에 하늘색 솜자리를 넣고 고무줄로 연결하여 천장에 매달아주었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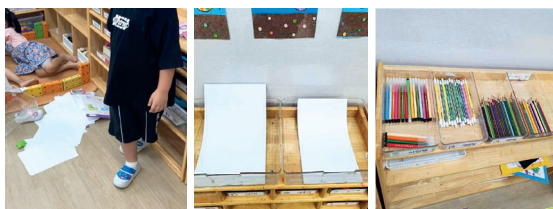
장애영유아의 경우 또래와 함께하는 놀잇감에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흥미에 맞는 놀잇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때로는 행동, 흥미, 활동에서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형태를 나타내거나 감각 경험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민하거나 민감해서 감각 경험을 줄여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수는 스카프나 긴 끈 등을 흔드는 것을 좋아한다. 민수가 놀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감각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통합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조율하여 또래가 흥미 있어 하는 주제와 민수의 관심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원하는 재료가 있어요.

주영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언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교사나 또래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놀잇감이나 재료를 쏟기도 한다.

주영이가 필요한 재료를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종이와 시트지, 색연필을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배치하였다.



주영이는 상어를 그리고 오린 후에 시트지로 상어를 감싸는 것을 좋아한다. 다양한 크기의 시트지를 제공하자 주영이는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었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주영이가 좋아하는 활동 자료를 수월하게 선택하고 쉽게 꺼내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종이와 시트지를 제공하고, 색칠 도구를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비치하였다. 이후 자신의 요구를 짜증이나 울음으로 표현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주영이는 “엔트! 엔트!” 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자 소리 지르는 행동을 보였다. 이후 주영이에게 다양한 크기의 종이와 시트지를 제공하였고, 주영이가 다양한 장소에서 상어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래가 주영이의 그림에 관심을 보여 함께 색칠할 수 있게 하고, 완성한 상어 그림을 바닥에 원 모양으로 붙여서 강강술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상어 그림을 잘라 굴비처럼 엮어 또래에게 선물해 주었더니 다음 날 동생 가방에 달아 주고 방에도 붙여 놓았다면서 주영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주영이가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하면 또래들은 주영이가 좋아하는 상어 인형이나 그림을 보여 주면서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들에게 엄지를 척 내밀면서 격려해 주었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우리 반에는 영유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할 수 있는 놀이자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 있나요?
- 우리 반 영유아들은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물감, 블록, 점토, 물, 모래 등)로 어떻게 놀이하나요?
- 우리 반 영유아들은 자연물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하나요?
- 영유아들이 일상의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시도한 사례가 있나요? 영유아의 놀이 시도 과정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영유아의 유능함을 발견하고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 우리 반에는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다루거나 인정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있나요?
- 우리 반 영유아들은 놀이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월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다양한 요구나 감각적 특성을 가진 영유아들이 놀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나요?



궁금해요

Q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각 반마다 비치해야 하나요?

A 교사는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각 반별 연령, 발달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하여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한 자료를 비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별로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놀이실에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놀이하며 차이를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역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개요

모든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배우는 존재이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배울 수 있는 유능한 존재이다.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은 교사,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능동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영유아의 욕구를 인정하고, 영유아가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배움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 배움의 특성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욕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영유아의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에 귀 기울이며 이를 존중한다. 더불어 교사는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존중해야 한다. 영유아는 교사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배우기도 하지만 또래 간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존재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영역 구성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관계를 맺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배움을 만들어 간다. 교사는 영유아가 만나는 다양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지원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비언어와 언어로 자신의 감정, 느낌,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영유아에게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영유아의 다양한 의사표현에 경청하며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 영유아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아는 눈빛, 시선, 손짓,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므로 더욱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사 역시 영유아의 의사를 존중하는 눈빛, 표정, 목소리, 몸짓, 언어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영유아가 교사의 반응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다양한 표현에 반응하고 영유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간다. 영유아의 표현에 대한 교사의 이해나 해석이 영유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지 영유아의 반응을 살피면서, 단어의 사용, 문장의 길이, 속도, 억양 등을 조절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간다. 교사는 반복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경청하기 위하여, 이야기할 때 눈높이를 맞추거나 상황을 고려하며 영유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생각하고 응답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멈추어 기다려준다. 이때 교사는 영유아마다 응답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기다려 주는 시간 역시 달라야 한다.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영유아의 유능함을 인정하기 위하여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지원한다. 교사는 교실을 수시로 살피며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관찰하면서 놀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가가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격려하며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말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가 선택한 놀이나 놀이자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미소, 끄덕임, 부드러운 시선 주기, “○○을 해 보고 싶구나”, “○○을 해보니 재미있구나” 등)으로써 영유아가 교사에게 수용되고 인정받는 느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놀이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교사는 영아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며 놀이를 이어가는 상호작용으로 배움을 지원할 수 있다. 교사는 놀이에 초대받을 경우,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방식대로 함께 놀이하거나, 영유아가 정한 놀이 규칙을 인정하면서 영유아의 놀이에 참여한다. 특히 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며 놀이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상호작용으로 영유아의 배움을 확장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칭찬, 격려, 미소, 공감 등 정서적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한다.

교사는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기보다는,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영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상상력과 사물을 의인화하는 영유아의 고유한 놀이 방식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교감하는 태도는 영유아의 유능함을 존중하는 상호작용의 주요한 부분이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성별, 신체적 특징 및 장애 유무에 따라 영유아를 비교하고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하며 영유아에게 고정적인 성 역할과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반응하며 영유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경험이나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존중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영유아가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영유아의 놀이를 강제로 멈추거나 놀잇감을 치운다.	영유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영유아의 놀이를 강제로 멈추거나 놀잇감을 치운다.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지원한다.
전체 교실의 영유아를 살피지 않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며 경험이나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무시한다.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존중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세요.

정희: (교사에게 다가와서 소리책의 버튼을 누른다.)
 교사: 정희야, 이 노래 좋아?
 정희: (고개를 끄덕이고 두 발을 쿵쿵하며 춤을 춘다.)
 교사: 노래 틀까?
 정희: (더 격렬하게 춤을 춘다.)
 교사: 바닥에 장난감이 많아서 춤추다가 다칠 것 같아, 장난감 정리하고 노래 틀어줘도 될까?
 정희: 응. (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교사와 함께 정리한다.)
 정희: (싱크대 위에 있는 음향 기기를 가리키며) 켜! 켜!
 교사: 이제 노래가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곡은 김정희 어린이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었는데 정희가 움직이지 않는다.

교사: 정희야, 이 노래 싫어?
 정희: (고개를 젓는다.)
 교사: 그럼 왜 안 움직여?
 정희: (전등 스위치를 가리키며) 꺼! 꺼! 불 꺼!
 교사: 불 끌까?
 정희: 불 꺼!
 교사: 이제 불이 꺼집니다. (벽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끈다.)
 정희: (미러볼을 가리키며) 켜! 켜!
 교사: 이거, 미러볼?
 정희: (고개를 끄덕이며) 응.
 교사: 미러볼을 켜니다.
 정희: 와! (소리를 지르며, 동물 흉내를 내며 움직인다.)

영아들은 동물 모자를 쓰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정희는 손짓, 한두 글자의 단어, 표정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정희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 표현을 경청하여 정희가 원하는 바를 파악하였다. 또한 정희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정희와 영아들이 원하는 놀이 방식(좋아하는 노래 틀기, 불을 끄고 미러볼 켜기 등)을 존중하면서 지켜보았고, 영아들의 놀이 방식에 맞추어 지원하였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바닥의 놀잇감을 영아들과 함께 정리하여 정희와 영아들이 안전하게 춤추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어! 어! 어!

어린이집의 위치 특성상 비행기가 낮게 날아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바깥놀이를 나갈 때도 여러 대의 비행기가 낮게 날아가고 있었다.

비행기가 날아가자 미소가 교사에게 다가온다.

미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어! 어! 어!

교사: 비행기가 지나가네.

미소: 응! (하늘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며) 응응!

교사: 아, 미소도 타봤어?

미소: (만족한 표정으로) 응!

미소: (다시 교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어! 어! 어!

교사: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네.

미소: (표정을 찡그리고 목소리 톤을 높이며) 어! 어! 어!

교사: 비행기가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뭘까?

미소: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저으며) 어! 어! 어!

교사: (미소가 얼마 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다녀온 것이 생각났다.)

아! 미소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 다녀왔지?

미소: (다시 만족한 표정으로) 응.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영아들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유능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다. 미소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하는 비언어적 표현(소리, 표정, 손짓 등)에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다녀온 미소의 경험을 떠올리며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미소가 생각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미소의 생각을 이해할 때까지 추측하며 미소의 생각에 맞추어 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소와 교감할 수 있었다.

그림 그려 줄게요!

물감 놀이 공간에는 물감을 온몸에 바르려는 영아도 있고, 또래를 지켜보고만 있는 영아도 있다. 물감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영아에게 교사는 물감 놀이를 소개해 본다.

지명: (몸에 물감을 바르며 놀고 있는 또래들을 지켜본다.)

교사: 지명이라도 이거 같이 해 볼까?

지명: 아니요.

교사: 그림, 보고 있다가 혹시 하고 싶으면 같이 해 보자. 세민이는?

세민: 아니요.

교사: 아니야?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많이 있어. 지난번에 물감 도장 찍을 때 좋아했잖아.

세민:

교사: 스펀지 도장으로 해 볼래?

세민: 아니요. (자리는 떠나지 않는다.)

교사: 뭐가 좋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 볼 건데. (손으로 물감을 찍어서 종이에 문질러 본다.)

세민: (손에 묻은 물감을 유심히 지켜본다.)

교사: 붓으로 하면 세민이 손에 안 묻히고 할 수 있어. 해 볼래?

세민: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교사 팔)에 그림 그려 줄게요!

교사: 여기? 그래. 세민이가 선생님 팔에 그림 그려 주면, 선생님도 승민이처럼 공룡이 되겠네.

세민: 내가 좋아하는 초록. 그다음 빨강.

교사: 선생님 팔에 세민이가 좋아하는 초록, 빨강으로 그려줄 거야?

세민: 내가 해 줄게요.

세민이는 교사의 팔에 물감을 묻혀 보고는 적극적으로 물감 놀이를 이어간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영아마다 놀이하는 방식이 다르다. 지명과 세민이는 교사가 제안하는 놀이 방식을 거부하였지만,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아들의 의사를 존중하였다. 영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 보았다. 영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영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시작할 때를 기다렸고, 세민이가 교사의 팔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여 이를 수용하였다. 세민의의 생각을 다시 말해 주었고, 상상의 이야기를 덧붙이며 영아들과 함께 즐겁게 물감 놀이를 하였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영아들이 자유롭게 물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종이를 넓게 깔아 주었다. 이렇게 놀이 공간을 구성하였더니 영아들이 주도적으로 물감 놀이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아들이 물감 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종이, 붓 등)를 제공하였다. 색을 칠해 보고, 물감을 직접 만져 보며 느껴 보고, 색을 만들어 보는 등 물감 놀이에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였다.

사례 4

3세 / 실내 놀이시간

교실이 낯선 민현이!

민현이는 중간 입소를 하여 등원한 지 이틀째다. 아직 반 친구들의 이름을 다 모르고, 낯선 환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인 교사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있다. 교사는 민현이와 책을 읽고 있다. 다른 유아들은 블록, 그림 그리기, 물감 놀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하고 있다.

교사와 함께 책을 읽던 민현이는 그림 그리기 공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교사: 민현아, 저기서 놀고 싶어?

민현: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민현이가 하고 싶으면 저기서 마음대로 놀아도 돼.

우리 교실 안에서는 민현이가 하고 싶은 놀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러 갈 수 있어.

민현: (고개를 저으며 교사의 손을 잡아당긴다.)

교사: 아, 선생님이랑 같이 해 보고 싶어?

민현: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그래! 민현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그림 그리기 책상에 앉은 민현이는 교사가 꺼내 준 종지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때 다른 유아가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를 갖고 와서 “부릉부릉”이라고 하며 민현이의 다리를 툭툭 건드린다.

민현: 으으응..... (자신을 건드리는 유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교사를 본다.)

교사: 민현아, 친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현: 네.

교사: 그럴 때는 민현이가 “불편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친구가 안 할 거야.

민현: 하지 마.

민현이의 말을 들은 유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민현: (교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민현이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니까 친구가 멈춰 주었네.

민현: 네. (그림 그리던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거.

교사: 그림 계속 그릴까?

민현: 네.

교사: 그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교사와 함께 그림을 다 그린 민현이는 말없이 종이를 가지고 교실 밖으로 나간다.

교사: 민현아, 어디 가고 싶어?

민현: 집에. 이거 가져갈 거예요.

교사: 이 그림을 집에 가져가고 싶었구나.

민현: 네.

교사: 그림 이따가 집에 갈 때 선생님이 이 그림 챙겨 줄게. 여기 민현이 서랍에 잘 넣어두었다가, 엄마가 오셨을 때 가지고 가자.

민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실 안으로 들어와 종이를 자신의 서랍에 넣는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아직 교실이 낯선 민현이가 교사에게 보이는 능동적인 비언어적 행동(고개 끄덕이기, 고개 젓기, 손가락과 눈빛으로 가리키기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다. 또한 민현이의 마음, 생각 등을 언어로 표현하여 민현이와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또래의 행동에 대한 민현이의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며, 다른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알아가도록 적절한 언어로 모델링을 하였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민현이가 낯선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뜻하게 대하였다. 민현이가 그린 그림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존중하고 하루 일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선생님, 같이 놀아요!

네 명의 유아와 교사와 함께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머지 유아들은 체스 놀이, 만들기 놀이, 블록 놀이를 하고 있다.

다연: 선생님, 미용사 그려 주세요!

교사: 미용사? 음……. 이렇게 그려 볼까? (미용사를 그리기 시작한다.)

(다 그린 후) 어때? 마음에 들어?

다연: 선생님, 가위로 오려 주세요!

교사: 다연이가 직접 해 보면 어떨까?

다연: 저는 잘 못해요.

교사: 지난번에 다연이가 가위로 집을 오리는 거 보았었는데, 선을 따라서 잘 오리던걸. 여기 작은 부분은 선생님이 오려 줄게.

큰 부분은 다연이가 해 볼래?

다연: 네, 좋아요!

교사와 다연이가 번갈아 가며 미용사 그림을 오리고 색을 칠한다.

교사: 미용사한테 파란색 옷을 입혀 볼까?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혜은: 이 미용사가 선생님이예요?

다연: 선생님, 옷은 분홍색으로 해야죠. 그래야 손님이 좋아해요!

교사: 그래? 손님들은 분홍색을 좋아해?

다연: 네! 그래야 손님이 좋아해요.

교사: 그럼 치마는 분홍색으로 칠해야겠다.

다연: (자신이 그린 사람 그림을 가져온다.) 머리 잘라주세요.

교사: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다연: (종이 위에 의자를 그리고 자신이 그린 사람을 앉힌다.)

교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다연: 공주님처럼 예쁘게요!

교사: (미용사의 손에 가위를 그린다.) 싹둑싹둑! 손님, 정말 예쁘네요. 다 됐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연: 히히! 재밌다!



다연이, 혜은이와 교사는 미용사 놀이를 계속한다.

교사: 이제 미용사는 바다에 놀러 간대. (종이에 파란색 바다를 그린 후 미용사를 올려놓는다.)

혜은: 모래는요?

교사: 모래? 아, 바다에 모래가 있어야겠네.

혜은: (색연필을 들고 와 교사의 그림 위에 모래를 그린다.) 됐어요!

다연: 미용사는 모래에 누워 있어.

혜은: 선생님, 이걸로 해 봐요. (하드보드지를 들고 온다.)

교사: 이걸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혜은: 이걸 반으로 접어 세우면 진짜 바다처럼 되잖아요.

교사: 어! 좋은 생각이다. 혜은아.

다연이, 혜은이, 교사는 하드보드지를 반으로 접어 세우고, 바닥 부분에는 모래를, 벽 부분에는 바다를 다시 그린다.

다연: (종이에 파라솔을 그리고 오리며) 선생님, 여기는 우산이 있어요. 햇빛을 가려야 해요.

혜은: 바다니까 튜브도 있어야죠.

교사: 그럼 튜브도 혜은이가 그려 줄래?

혜은: 네! (종이에 튜브를 그린 후 오린다.)

교사: 바다에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

설희: 돛자리!

교사: 오! 그래그래. 설희가 돛자리 그려줘. 난 선글라스도 만들어야겠어.

유아들이 파라솔, 튜브, 돛자리 등을 그려서 오린 후,
하드보드지로 만든 바다에 붙인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다연이와 혜은이가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였고, 유아들의 생각(하드보드지로 바다 만들기, 바다에서 필요한 것 등)을 존중하며 소통하였다. 다연이가 가위로 세밀한 부분 오리는 것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전에 가위로 오렸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해 볼 수 있도록 격려했다. 놀이가 반복되는 것 같아 바다로 놀러 가는 놀이 상황으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다연이와 혜은이의 주도적인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종이(얇은 종이, 하드보드지 등)와 색칠 도구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유아들이 수월하게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유아들은 놀이 상황에 따라 다른 놀이 공간에 있는 하드보드지를 가져와 놀이하는 등 자유롭게 놀이자료를 선택하고 놀이자료를 옮기며 놀이를 하였다.

우리는 모두 달라!

주승이가 접던 종이와 색종이를 마구 내던지며 짜증스럽게 운다. 교사는 주승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곁으로 간다.

교사: 주승아, 무슨 일이니?

주승: 개구리 접고 싶은데 잘 안돼요.

교사: 형이나 친구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때?

(주승이는 교사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표정을 찡그리고 짜증을 내며 울먹이기만 한다.)

교사: 선생님도 종이접기 잘 못하는데, 안 그래도 배우고 싶었는데 잘 됐다. 주승이가 거기 접은 데까지 선생님에게 알려 줄래?

주승: (울음을 그치고) 색종이가 두 장 필요해요.

교사: (색종이 두 장을 가져와 주승이에게 내밀며) 이주승 선생님, 잘 가르쳐주세요!

주승이가 교사의 모습에 배시시 웃으며 은재에게 배운 대로 개구리 접기를 막히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며 접는다.

교사: (막힌 부분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 생각보다 어렵네.

주승: 봐요, 어렵잖아요. 제 말이 맞죠? 여기에 다리를 넣어야 하는데 잘 안 들어가요.

교사: 아! 이 사이에 넣어야 하는구나. 이때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어려운데? 선생님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봐야겠어.

(종이접기를 계속하며) 음..... 선생님은 손이 커서 잘 안되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주승: 네, 은재한테 물어보세요.

교사: 은재야,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내가 해 볼게.

은재: (손가락을 접은 종이 사이에 쏙 넣으며) 이 사이에 끼우면 돼요.

교사: 이 사이에 이렇게? 아! 바람을 좀 넣어서 쏙 넣는구나. (주승이에게 곧바로) 너도 봤지? 주승이가 먼저 해 볼래? 내가 보고 배울게.

주승이가 종이 사이에 바람을 좀 넣고 뽕뽕하게 접은 종이를 쏙 집어넣는다.

교사: 오! 대단한데, 포기하지 않고 했구나. (웃음)

(교사의 말에 주승이가 함박웃음을 짓는다.)

교사: 주승아! 오늘처럼 개구리가 잘 접히기도 하고, 잘 안될 때도 있어. 편안하게 해봐.

주승: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주승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개구리를 한 마리 더 접기 시작한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유아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유아들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아들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때론 잘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 유아들이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유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의 표현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아들에게 교사의 의견을 말하면서 유아들의 반응을 살피며 소통을 이어갔다. 교사도 유아들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며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였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영유아들의 비언어적 표현을 살피려고 노력하나요?
- 우리반 영아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알고 있나요? 영아들과 소통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인가요?
- 영아들이 때를 쓰거나 울 때 주로 어떤 말을 하나요? 영아들의 마음, 생각 등을 그대로 존중할 때 영아들의 반응이 달라지나요?
- 영아들과 소통할 때 영아처럼 말을 하나요? 아니면 짧지만 분명한 문장 혹은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나요?
- 유아들의 의사나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나요? 그럴 때 유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 영유아들과 소통할 때 영유아들의 반응을 살피며 대화를 이어가나요?
- 영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억양, 목소리의 톤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거나, 정확한 발음과 문장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나요?
- 영유아들이 놀이하며 스스로 배우는 유능한 존재라는 점에 동의하나요?
- 영유아의 놀이에 적절하게 개입(질문하기 등) 하나요? 그럴 때 영유아들의 놀이가 지속되나요? 아니면 영유아들의 놀이가 중단되나요?
- 영유아들에게 놀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확장하는 편인가요? 영유아들은 교사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선호하나요?
- 영유아들의 다름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영유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영유아가 주도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영유아는 또래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을 표현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배움을 만들어 간다. 영유아는 재미있게 놀이기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여 조절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활기차게 놀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영유아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을 할 때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또래에게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또래에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언어적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을 나누는 영유아의 소통 방식을 존중해 주고 이를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다. 특히 영아가 바라보거나, 미소를 짓거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영아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지켜봐 준 후 교사의 언어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해 줄 수 있다. 영유아가 또래와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중에 자신들의 경험 혹은 배움을 나눈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나 활동에서의 배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의 놀이자료 활용, 놀이 방식 등을 서로 나누며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건지 ○○이에게 물어볼까?”, “친구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였는지 알려 줄래?” 등과 같이 또래 간 배움에 관한 상호작용을 격려한다.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는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영유아가 다툼이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또래 간 다툼이나 문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일방적으로 갈등이나 다툼을 정리하지 않도록 한다. 영유아가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영유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교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영유아가 이를 수용하는지를 확인하거나 다른 생각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아들은 언어적 표현이 서툴러 신체적 공격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안전을 확보한 후 양쪽 영아의 감정을 수용하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 행동을 모델링 한다. 또한 영유아가 다양한 긍정적 해결 방안(요청, 교환, 함께 쓰기, 번갈아 하기, 기다리기 등)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한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교사는 영유아들이 서로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또래 간에 소통을 통한 경험 또는 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영유아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영유아의 자유로운 대화가 허락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영유아들이 서로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영유아 또래 간에 경험 또는 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례 1

1세 / 실내 놀이시간

서로 다른 방식!

클레이 점토로 놀이를 하던 영아에게 다른 성질을 가진 점토를 경험하게 하고자 유토를 제공하였다. 유토는 기름으로 반죽된 점토로 영아들의 손힘으로 변형하기에는 딱딱하다. 그래서 라이트테이블 위에 넓게 펼쳐 열을 가해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온유는 유토를 작게 떼어 펜 뚜껑에 집어넣는다.

이산이는 유토 덩어리를 들어 자동차 위에 올린다.

다정이는 바닥에 붙어 있는 유토에 포크와 칼로 흔적을 남긴다.

서울이는 유토를 조금 떼어 손바닥에 두고 손을 비비며 유토의 모양을 만든다.

영아들은 한 테이블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토를 만나고 있다.



교사: 온유는 유토를 펜 뚜껑에 넣고, 이산이는 자동차 위에 올리고 있네.

(다정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듯이 손을 흔든다.) 다정이는 포크랑 칼로 유토에 자국을 만들고 있었구나?

우와~ (서울이의 행동을 따라 하며) 서울이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유토가 기다랑게 되고 있어.

온유, 이산, 다정, 서울이는 서로의 놀이를 바라보고 씨익 웃으며 자신의 놀이를 계속한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유토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놀이하는 영아들이 서로 어떻게 놀이하는지 지켜보다가, 영아의 놀이하는 몸짓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각자의 놀이 방식을 읽어주었다. 영아들은 자신들의 놀이 방식을 자랑스러워하였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놀이하는 친구의 놀이에 관심을 가졌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아들이 기존에 놀이하던 클레이 점토와 다른 성질을 가진 유토를 쉽게 변형할 수 있도록 라이트 테이블 위에 제공하였다. 영아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하였다. 유토는 영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놀이하고, 함께 놀이하며 친구의 놀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배움 자료이다.

사례 2

2세 / 실내 놀이시간

함께 책을 보고 싶어요.

미연이는 종이 상자를 이용하여 집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한다. 종이 상자를 형겅으로 덮고 좋아하는 놀잇감을 갖고 들어가 앉아 있다. 준이는 미연이가 들어가 있는 상자를 손으로 두드린 다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을 미연이에게 보여 준다. 준이가 상자 안으로 책을 밀어 넣으려고 한다.

미연: 하지 마!

준이: (아무 말 없이 미연이가 있는 상자 안으로 책을 계속 밀어 넣는다.)



미연이가 불편해하는 상황을 보고 다가와 언어적 표현이 서투른 준이의 마음을 미연이에게 말해 준다.

교사: 준아, 미연이하고 같이 책 보고 싶어?

준이: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미연아, 준이가 미연이하고 같이 책 보고 싶어 하는 데 같이 볼래?

미연: 아니요.

교사: 준아, 미연이는 지금 책 보고 싶지 않대. 선생님이랑 같이 책 볼래?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연이가 있는 곳만 쳐다보며 책을 계속 상자 안으로 밀어 넣는다.)

교사: 준이가 미연이랑 같이 책을 보고 싶구나. 그런데 준아! 미연이가 상자놀이를 다 할 때까지 다른 친구와 책을 보며 기다릴까?

준이: (미연이만 쳐다보며 계속 미연이의 상자 안에 책을 밀어 넣는다.)

교사: 아, 우리 준이는 미연이하고만 책을 보고 싶구나. (교사의 말을 들은 미연이가 갑자기 책을 보겠다며 상자에서 나온다.)

교사: 준아, 우리 미연이가 나왔네. 같이 책 보자.

준이는 미연이가 함께 책을 보기 위해 나왔다는 교사의 말에, 책을 펼쳐서 미연이 앞에 놓는다. 교사는 영아들을 위하여 책을 읽어준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종이 상자에 들어가 있으려는 미연이와 책을 보고 싶어 하는 준이, 두 영아의 마음을 모두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연이의 마음과 준이의 마음을 그대로 존중하였고, 두 영아가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언어로 표현해 주었다. 교사가 영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을 해 주자 미연이도 준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영아가 몸짓, 표정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영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소통을 이어가려고 하였다.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아들이 좋아하는 종이 상자를 제공하였고, 영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하였다. 상자는 영아들이 자신의 몸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배움 자료이다.

높은 구슬 길과 튼튼한 구슬 길

지혁이와 우석이가 블록으로 공이 굴러가는 길을 만들고 있다. 유아들이 만든 길이 점점 길어지면서, 쌓기 공간도 점점 넓어졌다. 지혁이는 공이 굴러가려면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석이는 길을 튼튼하게 연결해야 공이 멀리까지 간다고 생각한다. 지혁이와 우석이는 쌓기 공간에서 공이 굴러가는 길을 서로 다르게 만든다. 지혁이는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길을 만들고, 우석이는 촘촘하게 길을 연결하여 튼튼하게 만든다. 교사가 지혁이와 우석이에게 다가온다.

교사: 공이 굴러가는 길을 만들고 있니?

지혁: 네! 높은 곳에서 굴릴 거예요~

우석: 저는 튼튼한 길이요!

교사: 지혁이는 높은 곳에서부터 굴러가는 길을, 우석이는 튼튼한 길을 만들고 있구나! 둘 다 좋은 생각이다.

선생님도 같이 만들어도 될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래?

교사는 지혁이, 우석이와 함께 공이 굴러가는 길을 만든다. 높은 길과 튼튼한 길을 다 만든 후, 공을 함께 굴려보며 공이 어디까지 굴러가는지 관찰한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지혁이와 우석이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공이 굴러가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누구의 관점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관점이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두 방법을 모두 인정하고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혁이와 우석이는 각자 자신의 관점대로 놀이를 이어갔고, 친구의 관점도 공유하면서 함께 놀이하였다.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유아들이 좋아하는 공이 굴러가는 길 만들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어떤 놀이를 했지?

월요일마다 유아들과 지난주에 놀이했던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 다음 사진은 은지가 국자로 열심히 물을 담고 있네요.

은지: 오리 수영장 만드는 거야.

경민: 근데 수영장 물이 왜 저렇게 더러워?

하은: 저거, 문어가 먹물을 뽕~ 쓰고 가서 그래!



놀이 당시 큰 그릇에 담겨 있던 물에 하은이가 검은색 물감을 풀며 문어가 먹물을 뽕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지가 그 물을 퍼서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은: 그때 진짜 문어가 먹물을 쓰고 갔어! 그렇지 은지야?

은지: 음, 더러운 거 아니야. 경민아, 저거는 그냥 검은색인 거야.

경민: 그래! 알았어!

교사: (다음 사진을 보여 주며) 애들아, 이건 어디에 있을까?

민수: 내 거다, 내 거. (만들기·그리기 공간을 가리키며) 저기!

교사: 이건 무엇일까?

세호: 저거 문어잖아! 아기 문어네.

은지: 내 것도 있어!

교사: 어떤 것이 은지 거고 어떤 것이 민수 거야?

은지: (앞으로 나와 빨간 입에 혀를 내밀고 있는 문어를 가리킨다.)

교사: 그럼 민수는?

민수: (나와서 일자 입 문어를 가리킨다.)

준서: 은지는 문어 입을 (손가락으로 반달 모양을 만들며) 이렇게 그리고, 민수는 문어 입을 (손가락으로 일자 모양을 만들며) 이렇게 그렸구나. 그럼, 저 주황색 문어는 누구 거야?

하정: 음, 그건 내 거야. 하정이 거.

준서: (흰 종이로 만든 문어를 가리키며) 근데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어?



교실에 수동 문서 세단기를 처음 비치한 날 세호가 문서 세단기에서 나온 종으로 문어를 만들어 교실에 걸어 두었었다.

세호: 저거는 내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 (문서 세단기를 가져온다.) 어, 이렇게 돌리는 거로 돌리다가 빼면 돼!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유아들이 또래의 놀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지난주 놀이 사진(오리 수영장을 만드는 놀이, 유아들이 만든 문어)을 보여 주며, 유아들이 자신의 놀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교사의 기록을 보며 자신들의 놀이 방식, 놀이 경험(배움)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유아들이 자신들의 놀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이어갔다.

사례 5

3세 장애유아 / 실내 놀이시간

친구와 사이좋게 놀 수 있어요. ①

연준이는 옆 친구가 자신이 만든 기차길을 무너뜨려 화가 난 상태이다.

연준: (울먹이면서 바닥에 블록을 던지려고 한다.)

교사: 연준이가 만든 기차길이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그런데 블록을 던지면 친구가 다칠 수도 있어.

우리 속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준: (제자리 뛰기를 선택하면서) 이거.

교사: 그래? 그럼 제자리 뛰기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

연준: (친구들이 많지 않은 공간을 선택하면서) 저기.

교사: 그럼 조심히 가서 10번 뛰어보자.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연준이는 놀이를 하다가 또래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또래를 밀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연준이에게 네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수시로 알려주었고,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시각적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 시각적 자료에는 평소 연준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연준이는 '제자리 뛰기'를 선택하였고, 뛸 수 있는 공간에서 10번 정도 뛰고 교사에게 왔다. 연준이의 감정이 진정되면 놀이 상황에서 연준이가 속상했던 마음을 읽어주었다.

친구와 사이좋게 놀 수 있어요. ②

승훈이는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가지고 놀고 싶은 놀잇감이 있으면 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기도 한다.

준영: 선생님, 승훈이가 제 공룡 가지고 갔어요!

교사: 승훈아, 공룡은 준영이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어. 너도 놀고 싶구나. 그럼 준영이한테 먼저 물어보자.

승훈: 공룡 같이 놀자.

준영: 그래, 그럼 어떤 공룡 가지고 놀고 싶어?

승훈: (초록색 티라노사우루스를 가리킨다.)

준영: 초록색 티라노사우루스? 좋아.

교사: 그래, 승훈아. 승훈이가 놀고 싶은 장난감을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먼저 이야기해서 물어보는 거야. 잘했어, 승훈아.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장애영유아들은 주변 상황을 오해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승훈이가 또래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에는 지금 하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알려줄 때도 있다. 또한, 또래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예 “나도 같이 놀자”)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승훈이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후 유사한 상황에서 요구하기, 차례 지키기, 함께 놀이하기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학기 초 승훈이가 새로운 반으로 등원하였을 때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환절기 컨디션 난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심각한 공격 행동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승훈이의 행동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은 가능했었지만 점점 강도가 세어지게 되어 통합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와 의논을 하였다. 가정과 연계해 승훈이가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너무 힘들어하면 어린이집의 조용한 공간에서 쉴 수 있음을 승훈이에게 안내해 주었다. 공격 행동이 나올 경우 행동을 멈출 수 있도록 승훈이에게 간결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와 같이 긍정적인 격려의 말을 건넸다.



함 께 생 각 해 보 기

- 영유아들이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툼을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 영유아들이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 영유아들이 함께 놀이하고, 활동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을 보았나요?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 우리 반 영유아들의 놀이나 활동 경험 혹은 배움을 반 영유아들과 나누나요? 영유아들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영유아들이 다툼이나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영유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해결책을 제시 하나요?



영역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개요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계획안에는 교사가 반 수준에서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생각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계획은 영유아의 경험이 교육적일 수 있도록 수립하고, 영유아 놀이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 교사의 지원 방안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실행 계획의 종류, 형식, 분량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실행은 준비된 환경에서 영유아가 놀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계획이 수립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이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통한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보육과정 운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육과정의 ‘계획-실행-평가’가 순환되도록 하여 표준보육과정의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여야 한다.



영역 구성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관찰 및 실행 계획

영유아는 교사가 준비한 환경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하고, 교사는 인상적이었던 것, 궁금했던 것, 혹은 알고 싶은 것 등을 토대로 관찰하여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한다.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놀이를 바라만 보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놀이를 하며 경험한 내용을 관찰하고, 놀이에서 나타나는 배움에 주목하며 기록하는 것이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배움을 각 영역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영유아는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각 영역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영유아가 놀이하며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적합한 방식으로 기록한다. 기록은 일과 관찰 중 찍은 사진이나 간단한 메모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상세한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록은 영유아의 놀이 지원 계획을 위한 교사의 자율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계획은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와 연계되고,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를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은 교사가 반 수준에서 영유아에게 놀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미리 생각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일 년 혹은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영유아의 경험과 배움을 염두에 두고 교실 환경을 구성하고, 놀이자료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혹은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일일, 주간, 혹은 월간으로 수립하고 영유아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행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활동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한 배움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지원이다. 활동을 운영할 때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내용과 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영유아가 하고 있는 놀이에 부합하면서 영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관련된 동화 듣기,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게임 등을 제안하여 즐겁게 놀이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놀이 규칙 정하기, 특정 관심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 등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더라도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영유아의 삶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돕는 놀이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초등학교 관련 자료의 교실 비치, 초등학교 둘러보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들 간의 교류, 졸업생 초대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다양한 교육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 개별화교육계획을 통해 발달적 차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장애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5세 유아의 경우,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 혹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다양한 교육 진단을 통해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놀이, 일상생활, 활동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찰하여 기록한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실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세 유아)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 혹은 활동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다. -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 개별화교육계획이 포함된 보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장애 유형 및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하지 않는다.*	-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한다. -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기록한다. (5세 유아)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 혹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다양한 교육 진단을 통해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 및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한다.*

*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5월 2일]

지은이가 도시락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갔다. 지은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영아들도 자료가 담겨 있는 상자에서 자료를 빼고 그 안에 자신의 몸을 넣는다. 보육실에 상자가 많지 않다 보니 원하는 놀이를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영아들이 몸을 넣을 수 있는 큰 상자를 제공해 주고 영아들의 놀이를 다시 관찰해 볼 예정이다.

[5월 3일]

영아 수만큼의 플라스틱 상자를 보육실 한구석에 펼쳐 놓았다.

다영이와 서진이가 상자를 하나씩 들고 교실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다영이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상자 안에 자신의 발을 조심스럽게 넣으려고 한다. 교사는 넘어지지 않고 조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상자를 잡아 준다. 현수도 자신의 몸을 조심스레 상자에 넣는다. 우정이는 비어 있는 상자를 현수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 맞닿게 놓고 그 안에 몸을 넣는다. 교사가 “현수 뒤에 우정이가 탔네.”라고 말하자, 그 뒤로 지은, 채은, 도진이도 상자를 가져와 길게 잇고 그 안에 몸을 넣는다. 교사가 “우아! 길어졌다.”라고 말하자 우정이가 “이거 기차!” 하고 웃으며 이야기한다. 그리고 현수가 교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 한다. 상자를 탄 영아들은 교사에게 손을 흔들며 기차를 타고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가는 놀이를 한다. 영아들의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아들은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한 발 한 발 넣으면서 안전하게 놀이하였다. 어제 상자 수가 부족했을 때에는 영아들이 번갈아 들어갔었는데, 오늘 여러 개의 상자를 제공하니 영아들이 상자를 연결하였고, 이를 보면서 ‘기차’를 상상하는 경험을 하였다. 내일도 영아들이 상자로 또 어떤 놀이를 할지 살피며 기록으로 남기고, 영아들이 다시 기차를 만들어 놀이한다면 함께 놀이에 참여하여 지원해야겠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영아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자신의 몸을 넣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를 기록하면서 영아들이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며 놀이할 수 있도록, 상자를 영아들의 수만큼 제공하였다. 교사는 영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하고 친구들과 상상놀이를 즐기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였으며, 다음날은 영아들의 놀이에 참여하는 실행 계획을 세웠다.



4-2 보육과정 평가

동료 교사와 놀이 시간이 충분했는지, 놀이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상자를 가지고 놀이하기를 원하는 영아들이 많다 보니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상자를 추가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으며, 놀이하는 영아들을 관찰하고, 영아들이 놀이하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기록하였다.

사례 2

1세 반 / 놀이기록 및 지원 계획

[이야기공간]

소리책과 번기에 관심이 많은 영아들을 위해 관련 그림책을 제시해 주기로 하였다.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접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책을 함께 읽으며 영아들이 책 내용을 표현하고 따라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책 속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관찰하며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구성하기공간]

벽돌 블록과 자석 블록을 탐색만 하던 영아들이 이제는 높이 쌓아 보고 길게 줄을 세우고 동물 인형을 들고 와서 상상놀이를 이어가고 있다. 점점 많은 영아들이 동물 인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하기 공간을 좀 더 넓히고, 동물 모형 놀잇감을 좀 더 내어주고자 한다.

[알아가기공간]

많은 영아들이 촉감 놀잇감에 들어 있는 아주 작은 거울, 입체 그림책에 붙어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관심을 보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매우 좋아하면서 거울을 가지고 놀이하는 횟수도 늘어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곤 하였다. 영아들이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정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다음 달(4월)에는 교실 한쪽 벽면에 큰 거울을 붙여 주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더불어 거울을 매개로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또래에 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큰 거울은 영아들이 자신의 얼굴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표현하기 공간]

영아들이 여러 가지 색과 모양의 종이에 자유롭게 끼적이고 스티커 붙이기를 하며 놀이하였다. 스티커 떼기를 어려워하던 영아들이 점차 집중하며 떼어내고 종이에 붙이며 재미있어하였다.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영아들이 함께 표현하며, 자신들이 표현한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큰 전지나 종이를 바닥과 벽에 붙여 주고,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를 제공하고자 한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영아들이 3월 한 달 동안 보육실에 구성된 놀이 공간에서 어떻게 놀이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영아들이 놀이하며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영아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 자료, 상호작용, 안전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4-2 보육과정 평가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공간, 놀이자료 제공, 상호작용, 영아의 통합적 경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9월 22일]

동건이와 지상이는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튼튼한 집을 만들고,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동건이와 지상이의 놀이 이야기가 다양하게 변화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기록을 정리하여 동건이와 지상이의 놀이를 다시 살펴보니, 놀이에 ‘늑대’라는 가상의 등장인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내일은 교사가 직접 보자기를 두르고 늑대가 되어서 함께 놀이해 보기를 계획하였다.

[9월 23일]

교사가 늑대가 되어 동건이, 지상이와 놀이를 함께 하자, 다른 유아들도 보자기를 두르고 늑대가 되어 함께 놀이를 하였다. 그러다가 지상이가 교사에게 늑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꺼내 유아들과 함께 늑대 영상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늑대 울음소리는 어떠한지, 늑대는 어떻게 달리는지 등을 함께 탐구하였다. 늑대의 움직임을 본 유아들은 교실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뛰어다니고 늑대 소리를 흉내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교실 이곳저곳에서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는 다른 친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교사는 늑대 이야기 놀이를 하는 유아들에게 친구들의 불만을 전하고, 어떻게 놀이해야 친구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즐겁게 놀이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아들은 “여기(쌓기 공간)에서만 놀이해야겠어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함께 놀이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늑대의 움직임과 소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였고, 직접 늑대가 되어 움직이며 상상놀이를 하였으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약속과 규칙을 정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늑대 놀이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관찰하고자 한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그동안 잘 관찰하지 못했던 유아의 놀이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유아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다. 유아들의 놀이가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면서, 직접 늑대가 되어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교사의 지원으로 유아들은 늑대에 대해 탐구하고 상상하는 경험을 하였다.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유아들을 관찰하면서, 내일은 늑대 놀이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보기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7월 15일]

지은이가 라이트테이블 위에 그림을 놓고, 그 위에 흰 종이를 덧대면 아래의 그림이 비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면서 많은 유아들이 캐릭터 스티커를 라이트테이블 위에 놓고, 그 위에 다시 흰 종이를 올려 캐릭터 그림을 따라 그렸다.



[7월 17일]

유아들은 빛에 의해 흰 종이 아래의 그림이 비치는 모습을 탐구하는 것을 즐겼다. 채색 도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캐릭터를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코팅하듯이 투명 테이프로 감싸서 큰 종이에 전시하고 감상하는 경험을 하였다. 다음 주에는 유아들이 따라 그릴 수 있는 더 다양한 캐릭터와 채색 도구를 제공해 주어야겠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유아들이 라이트테이블에서 그림 그리기를 지속하고, 다양한 캐릭터 그리기를 시도하면서 점점 능숙하게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관찰하였다. 유아들은 더 다양한 캐릭터를 그리려는 시도를 하면서 그림 그리기에 몰입하였다. 유아들이 따라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 그림을 제공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경이라는 유아가 입소했다. 우경이는 이제 막 3세가 되었고,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은 유아이다. 교실 안의 토레를 보더니 다가가 어울리려고 하는데 발뽀꿈치를 들고 돌아다녔다. 교사의 모니터와 교실 안 텔레비전, 공기 청정기 등에 관심을 보였다. 우경이의 부모님은 밥을 잘 먹지 않는 우경이를 많이 걱정하였다. 3~4주 동안 우경이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잘 하는 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분석하여 우경이가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우경이에게는 토레와 함께 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개별적이고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경이의 개별적,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발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경이의 현재 발달수준에서 강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구분	종류
관찰	일화기록, 수행활동자료, 일과수행평가 등
교육과정 중심 진단	영유아 캐롤라이나 교육과정, 영유아를 위한 사정 평가 및 프로그램 체계(AEPS) 등
가족 및 기타 정보	영유아 정보조사서 및 부모 요구 조사서, 전문가의 협력 관련 서류, 가정 방문 등

※ 교육 진단에 사용되는 다양한 관찰 및 검사 등의 종류는 장애영유아의 특성,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음

[관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우경이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였고 일화기록, 수행활동자료, 일과수행평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놀이, 일상생활, 활동 중 우경이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일화기록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일화기록을 보면서 우경이가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행동, 관찰 기간 동안 장애영유아의 반복되는 행동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더니 발달 영역별로 강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경이가 일과에서 수행한 기록물인 수행활동자료(예 그림, 활동사진, 작업 결과물 등)를 통해 우경이의 현재 성취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우경이의 발달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과수행평가 등의 평정기록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일과에서 우경이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화기록과 수행활동자료에서는 우경이의 강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파악하였는데, 일과수행평가에서는 우경이가 일상생활, 놀이, 활동에서 아직 습득하지 못한 항목, 수행이 어려운 항목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육과정 중심 진단]

교육과정 중심 진단에서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억하여 체크하거나 관찰되지 않은 항목은 부모님과 의논하여 평가하였다. 수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놀이 상황에서 놀잇감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관찰한 내용은 부모님이 평가한 내용과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가정으로 평가도구를 보내거나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면서 우경이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였다. 가정으로 평가도구를 보내는 경우, 구체적인 안내문을 함께 보내어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발달 영역별로 또래 집단에 비해 '정상'이나 '지연' 등의 결과만 제시하는 선별 검사의 경우, 현재 유아의 발달수준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교수계획을 세우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우경이의 수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성취 기준에 비추어 수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우경이의 발달 영역별 현재 수준을 파악하였다.

[가족 및 기타 정보]

가족 및 기타 정보에서는 입소 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부모님의 요구나 우선순위가 포함된 영유아 정보조사서를 가정으로 보내어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류는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찰, 교육과정 중심 진단, 가족 및 기타 정보 등에서 얻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교사는 우경이를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현행 수준(예 현행 수준 요약서 또는 현재 수행 평가서 등)에서 우경이의 행동에 대한 강점과 지원이 필요한 점을 작성하였다. 장애영유아의 현행 수준을 기반으로 장기 목표를 기술하였고, 장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하위 목표로 단기 목표를 작성하였다.

교육 진단 이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회의 날짜를 우경이 부모님과 함께 정하였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장애영유아의 기본 인적 사항, 교육 기간, 장애영유아의 현행 수행 수준, 교육 목표(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 평가 계획, 치료지원 내용(단, 어린이집 내 치료사가 배치된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원장 이름(서명), 보육교사 이름(서명),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이름(서명), 치료사 이름(서명. 단, 치료사는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치료사를 의미한다.), 부모 이름(서명)'을 포함하였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서명은 개별화교육계획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개별화교육계획지원팀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우경이가 보이는 도전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예 행동 지원 방안)을 개별화교육계획에 작성하여 부모님과 협의하였고 가정과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2019.10.23.)에서는 발달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구체적 지원 방법이 포함되도록 개별화교육을 개선하도록 권고함

개별화교육계획이 포함된 보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장애 유형, 장애 특성 및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한 내용이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 활동을 하기보다는 우경이가 선택하고 관심 있는 놀이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등원]

“우경아, 씹씹하게 교실에 들어왔구나!”, “놀이하기 전에 손 씻고 소변보러 화장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스스로 화장실로 이동한다. 익숙해진 패턴으로 스스로 먼저 손을 씻는다. 교사가 “우경이 손 씻었으니까 소변도 보고 오자.” 한 후, “선생님은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한 번 더 말하자 스스로 소변보러 이동한다. “우경이 소변봤구나!”라고 사회적인 칭찬을 들려주며 엄지를 척 내미는 비언어적인 표현도 보여 주자 교사를 보고 웃는다. 소변을 본 후에 교사가 한 번 더 손을 씻자고 하자 손을 씻고 나온다.

일과 중 손 씻기, 화장실 가기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적응 행동 2-1’을 융통성 있게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낮잠 및 휴식]

낮잠시간에 교사가 토닥여주며 “우경아, 오늘은 꿈속에서 어떤 친구 만나러 갈 거야?”라고 묻자, 우경이는 “개미, 지렁이, 애벌레, 공룡!”이라고 대답했다. “응, 선생님이 우경이가 꿈속에서 친구들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재워 줄게. 우경이도 코~ 자워.”라고 하며 토닥여주자 15분 이내로 잠이 들었다.

낮잠 및 휴식 시간에는 ‘의사소통 1-2’를 계획하기 위해 교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사소통 1-1’과 관련된 경험을 지원하였다.

발달 영역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목표 행동
적응 행동	1.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다.	1-1. “식사 시간에 어떤 음식 먹을까?”라고 하면서 식사 카드(반찬 사진)를 보여 주면 5번의 기회 중 3번 이상 먹고 싶은 반찬을 두 가지 고를 수 있다. 1-2. 성인이 “밥/반찬 먹자.” 혹은 “밥 먹고 반찬 먹어보자.”라고 말하면 5번의 기회 중 3번 이상 연속적으로 밥과 반찬을 먹을 수 있다.
	2. 화장실 이용 시 언어적으로 표현한 후 이용할 수 있다.	2-1.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쉬하러 갈까?”하고 이야기를 한 후 성인이 함께 화장실로 이동해 줄 때마다 70% 이상 소변을 보고 나올 수 있다. 2-2.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황이 올 때 성인의 언어적인 도움을 받아 “쉬” 혹은 “쉬 마려.” 라는 표현을 3번의 기회 중 2번 이상 표현하며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다.

발달 영역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목표 행동
의사소통	언어 이해 1. 상대방의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1-1. 대화 중 상대방이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면 30초 이내에 상대방의 얼굴을 응시할 수 있다. 1-2. 그림이나 사진의 상황을 보고 성인의 언어적 도움을 받아 3회 이상 주고받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언어 표현 2. 자신의 요구 사항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야, 이거 해줘.)	2-1.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상황이 주어질 때 “보고 이야기할까?” 의 이야기를 듣고 5번 중 3번 이상 교사와 또래의 눈을 쳐다보며 전달하기를 시도할 수 있다. 2-2. “이제 뭐 할까?”라고 성인이 물으면 일과표 사진을 보며 매일 5번의 기회 중 3번 이상 적절한 일과를 선택하여 “~할래요.”라고 말할 수 있다.

[실내 놀이]

바닷가 놀이와 관련하여 물놀이 용품을 준비해 주자 우경이는 스스로 관심을 갖고 튜브 안에 들어가 물놀이를 시작했다. “우경아, 지금 어디 놀러 왔어?”라고 놀이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자 “수영장 놀러 왔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래. 우경이 지금 수영장 놀러 왔지?”, “수영장에서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친구들과 놀이할 때 서로 안 부딪히게 조심히 첨병첨병 놀이해 줘!”라고 말하자 “네!”라고 약속을 한 후 스스로 물놀이할 때의 동작을 표현해 본다. 놀이하면서 “와! 재밌네!”라는 이야기도 한다. 민준이가 “우경아, 나랑 같이 수영해 보자.”라고 하자 우경이가 “좋아!”라고 답한 후, 둘은 같은 물놀이 동작도 표현해 보며 물놀이를 한다.

실내 놀이 시간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의 ‘사회·정서 1-2’와 ‘의사소통 1-2’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과 및 활동에서 연계하여 지원하려고 예상한 ‘사회·정서 1-2’는 우경이의 놀이 상황에서 연계하기 어려웠고 우경이의 놀이 흐름을 따라가 보니 ‘사회·정서 2-2’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또래와 놀잇감을 공유하였을 때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 시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발달 영역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목표 행동
사회·정서	사회 질서 규칙 1. 하루 일과 내에서 규칙을 지킬 수 있다.	1-1. 교사가 또래들이 모여 있는 자리를 가리켜 준 후 “모여 앉아 볼까?”라고 언어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면 5분 이내로 자리로 모임 수 있다. 1-2.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상황에 맞는 시각적 일과표를 보여 주면 70% 이상 해야 할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대인 관계 기술 2. 친구가 같이 놀자고 이야기 하거나 놀잇감을 건넬 때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다.	2-1. 친구와 함께 놀잇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교사가 “나누어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5번의 기회 중 3번 이상 친구와 주고받으며 놀이할 수 있다. 2-2. 놀잇감을 공유하였을 때 매일의 상황에서 10분 이상 친구와 같은 놀잇감을 사용하여 놀이할 수 있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장애영유아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여 보육일지에 기록하였다.

장애영유아의 놀이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배움에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관찰을 통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일과 내에 지원하려고 했던 개별화교육계획을 영유아가 다른 놀이에 관심을 보여 일과 내에 연계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놀이 흐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개별화교육계획을 연계할 경우에는 일과 후 평가를 통해 실행한 내용을 작성하고 놀이의 흐름에서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기록하였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오늘 영유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오늘 영유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기록하면서 영유아들이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였나요?
- 실행 계획은 영유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나요?
-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유아들이 초등학교 진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찰, 교육과정 중심 진단, 가족 및 기타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현행 수준(예 현행 수준 요약서 또는 현재 수행 평가서 등)을 작성하였나요?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장애영유아의 현행 수준을 기반으로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작성하였나요?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장애영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개별화교육계획을 연계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였나요?



궁금해요

Q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돕기 위해 어떤 놀이나 활동을 제공해주어야 하나요?

A 5세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돕는 놀이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누리과정-초등 교육과정의 주제나 배움을 연계한 놀이와 활동, 초등학교 관련 자료 및 환경 지원(예: 학교 생활 관련 도서 제공, 물품 비치, 교육 공간 재구성 등),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사전 경험 활동(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다른 점 알아보기,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습관 기르기, 초등학교 둘러보기, 졸업생 초대 등) 등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육과정 평가

보육과정 평가는 어린이집이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지를 되돌아보고 개선해 가는 과정이다. 표준보육과정에 의하면 평가를 간략화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를 강조한다. 어린이집은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결과의 활용을 바탕으로 보육과정 평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평가의 목적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보육과정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보육과정 운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역 특성, 각 어린이집 및 반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의 내용, 평가 주기 및 시기,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은 각 어린이집 구성원들 사이의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정한다.

평가는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로 이루어진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에서는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하였는지, 영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놀이 지원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운영과 관련하여 목적을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의 방식 역시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집 단위에서 혹은 반 별로 평가 방식을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영유아 평가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행복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유아가 가장 즐기고 잘하는 것, 놀이의 특성, 흥미와 관심, 친구 관계, 놀이를 이어가기 위한 자료의 활용 등에 주목하여 영유아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한다.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놀이 실재를 계획안 혹은 일지 등에 기록할 수 있고,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교사는 관찰 기록, 놀이 결과물 등을 누적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교사는 개별 영유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보다 영유아의 배움이 나타나는 도래 간의 놀이나 활동 등 영유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를 하도록 한다. 또한 영역별 내용을 성취 기준으로 잘못 인식하여 영유아의 놀이에서 영역별 내용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체크하거나 영역별로 분절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뿐 아니라, 평가 결과를 보육과정 운영 개선, 실행 계획 수립, 영유아 이해,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위한 평가이므로 영유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공간 구성, 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하여 영유아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화교육계획이 실행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의 개별화교육계획의 수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장애영유아의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기록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성취 정도를 파악하면서 교수방법이나 목표 등을 수정할 수도 있고, 부모 면담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4-2. 보육과정 평가

표준보육과정의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에 관한 개별 평가는 관찰 기록 등을 누적 수집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는 보육과정 운영 개선, 실행 계획 수립, 영유아 이해,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한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연 2회 이상 다양한 교육 진단과 일상적인 놀이 관찰 기록 등을 수집하여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단계 목표 수립, 지원 방법,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하지 않으며, 계획되어 있지 않다. •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	•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관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 장애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진단과 일상적인 놀이 관찰 기록 등을 수집하여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는 보육과정 운영 개선, 실행 계획 수립, 영유아 이해,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한다. - 장애영유아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장애영유아 지원 방법 및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한다.*

*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8월 한 달 동안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하였다.

놀이시간

8월에는 영아들이 여름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놀이를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다. 오전에는 영아들이 등원하자마자 바깥놀이터로 나가 바깥놀이를 하였다. 모래 놀이터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은 채 맨발로 놀이하는 영아들이 있고, 아직 맨발 놀이를 꺼리는 두 명의 영아도 있다. 영아들이 맨발, 양말만 신기, 신발 신기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바깥에서 놀이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준수는 점심 먹으러 보육실로 들어가자고 하니 바깥에서 더 놀고 싶은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영아들이 먼저 들어가서 손을 씻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준수는 교사와 함께 바깥에서 좀 더 놀다가 보육실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아마다 놀이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표현이 다르므로 이에 주목하며 운영하였다.

놀이 환경

더운 여름이지만 영아들이 보육실에서만 지내도록 하지 않고, 바깥놀이터, 동네 놀이터, 동네 공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놀이하며 여름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상위 연령 반으로 놀러 가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추가하여, 다양한 놀이 환경과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안전 교육

더운 여름에도 영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놀이 시 영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였고, 모래놀이 시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펼쳐 지원하였으며, 영아가 모래놀이에 집중할 때 뜨거운 햇빛에 너무 오래도록 앉아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뜨거운 햇빛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을 경우 그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영아들에게 안전 교육을 추가하여 실행하기도 하였다. 동네 산책 시 앞뒤를 수시로 살피며 자동차가 보일 때마다 영아들에게 “자동차가 오고 있어. 어떻게 할까? 옆으로 피하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자동차를 확인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함을 지도하였다. 영아들은 산책 시 위험하다는 교사의 말에 주의하며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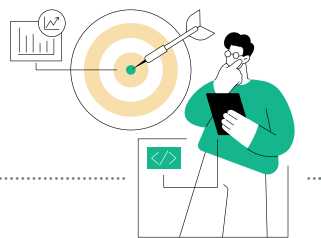
놀이자료 지원

영아들이 보육실과 바깥놀이터의 다양한 놀이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평소 물놀이를 좋아하는 영아들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주 2~3회 물놀이가 이루어졌다.

물놀이를 위해 간이 수영장을 활용하였고,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그늘막을 펼쳤다. 물놀이를 할 때는 실외 놀잇감은 물론 보육실의 놀잇감도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아들이 물놀이를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보육실에서 가지고 놀이하던 커다란 푸른색 천을 간이 수영장 바닥에 깔아서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소 보육실에서 가지고 놀이하던 500ml 페트병에 작은 구멍을 뚫어 물총처럼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영아들은 구멍이 뚫린 페트병에서 분수처럼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물이 새어 나오자 환하게 웃으며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였고,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였다. 그리고 바깥놀이터에서 물감 놀이를 할 때 해면스펀지를 놀이자료로 지원하였는데, 영아들은 해면스펀지를 물에 빠뜨렸다가 건지고, 손에 힘을 주어 물먹은 스펀지의 물을 짜내는 것을 반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놀이하였다. 비싼 물총이나 장난감이 아닌 일상에서 영아들이 자주 다루고 경험한 도구들을 물놀이자료로 제공하니 물놀이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다. 실내에서는 커다란 푸른색 천, 푸른색 물감을 활용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 영아들은 벽면에 붙인 전지보다는 보육실 바닥에 넓게 펼쳐진 도화지에서 더욱 흥미를 보였고 활기차게 놀이하였다.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 통합적 경험

8월 한 달 동안 놀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안전한 상황에서 물놀이하며 자신의 신체와 풍부한 놀이자료로 물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아들은 물과 페트병 구멍의 관계를 경험하며 친숙한 물체를 살펴보고, 모양을 즐겁게 탐색하였다. 파란색 물감과 흰색 물감으로 '푸른색'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며 색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아는 대소근육을 조절하며 다양한 신체 감각 경험을 하였다. 또한 영아들은 교사와 친구의 말소리, 주변의 매미 소리와 물소리, 산책 시 자동차 소리에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의 경험을 표정, 몸짓, 웅얼이나 단어로 표현하였다. 놀이와 일상생활 중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고 또래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때, 영아들이 점차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며 어린이집의 생활을 편안해하는 것 같다.



4-2 보육과정 평가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8월 계획에 따른 실행 평가와 놀이 지원, 놀이자료 제공, 영유아의 통합적 경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8월의 뜨거운 날씨를 반영하여 물놀이를 계획하였고, 시간이 충분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다양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실행되었는지를 영아의 반응을 통해 평가하였다. 바깥놀이에서 영아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육 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놀이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날씨를 고려하여 영아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었는지, 영아의 놀이 경험이 표준보육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교사들과 공유하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것이다.

8월 한 달 동안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일과 운영

무더운 여름 날씨로 오전 실내 놀이와 바깥놀이 시간대를 변경하여 일과를 운영하였다. 바깥놀이터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여름 햇빛과 그늘, 바람을 몸으로 느끼며,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실내 놀이와 바깥놀이 시간이 변경되면서 등원을 늦게 하는 1~2명의 유아들은 오전 바깥놀이를 많이 즐기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무더위로 인해 동네 산책이 주 2~3회 정도 이루어졌다.

놀이시간

무더운 날씨였으나 유아들이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즐거운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내외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유아들이 간이 수영장을 활용한 놀이, 비즈를 활용한 만들기 놀이 등에 몰입하였을 때, 유아들과 점심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며 식사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안전 교육

바깥놀이터에서 놀이할 때, 말벌이 자주 나타났다. 말벌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유아들은 무서워서 손으로 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유아들에게 말벌이 멀리 날아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기, 말벌 집을 발견했을 때 만지지 않고 선생님에게 알리기 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깥놀이터에서 물놀이를 할 때에는 친구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리지 않기, 추우면 선생님에게 알리기, 물놀이 중간에 잠시 쉬기 등의 놀이 안전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사는 유아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물놀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다.

놀이자료 지원

유아들이 주제(여름, 물)를 즐겁게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푸른색 대형 비닐, 커다란 푸른색 천, 파란색 물감과 흰색 물감, 인어공주 의상, 바다 동물 모형, 커다란 종이 상자, 물풀, 투명 아세테이트지, 플라스틱, 얼음 블록, 얼음, 시원한 바다 영상과 음원 등 풍부한 비구조적 놀이자료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이 특히 물풀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여서, 물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누리과정 5개 영역 통합적 경험

8월 초 발생한 '태풍'에 유아들이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였고, 몸으로 태풍의 움직임을 즐겁게 표현하였다. 오후 바깥놀이에서 줄넘기에 관심 있는 유아들은 줄넘기를 하면서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였다.

유아들이 비, 빗방울, 물방울, 물줄기, 얼음 등 자신의 주변에 늘 존재하는 ‘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얼음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비즈를 활용하여 반짝반짝한 얼음, 다양한 얼음 등을 만드는 창의적인 예술 경험도 이루어졌다. 놀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물에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에 대해 알게 되는 자연탐구 영역의 교육 내용을 자연스럽게 경험하였다.

우연히 지원하게 된 두 개의 대형 상자와 대형 비닐을 활용하여 유아들은 수영장, 바닷속, 집, 자신만의 공간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다. 4~5명의 유아는 오전 실내 놀이시간 동안에, 이 공간에서 주로 놀이를 할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놀이 공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친구들과 공간을 사이좋게 공유하며 놀이하였고, 그 속에서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며 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한 사람이 그 공간 속에 있을 때와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그 공간 속에 있을 때의 다양한 공간감을 경험하였다.

학부모의 지원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안전에 유의하며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유아들은 드라이아이스에 물을 넣었을 때 생기는 연기, 물과 만나면서 발생하는 물방울을 관찰하며 매우 흥미로워하였다. 드라이아이스가 녹은 후에는 얼음을 제공하여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9월 주제 선정 및 계획 반영

놀이 과정에서 유아들이 도화지, 색종이 등을 그냥 구겨서 버리거나 아주 작은 선이나 점을 끼적인 후 버리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였다. 9월에는 유아들이 종이를 가지고 즐겁게 놀이하면서 종이의 소중함 등도 함께 경험하고 배우기를 기대한다.



4-2 보육과정 평가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한 달 동안 운영을 ‘계획-실행’으로 평가하였다. 날씨가 더워져서 바깥놀이 시간을 변경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하기 위해 점심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바깥놀이를 할 때 유아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육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놀이자료를 제공했는지를 평가하였다. 유아의 놀이 경험이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교사들과 공유하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9월 계획에 반영하였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유아들이 종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다음 달에는 다양한 종이 자료를 제공하여 즐겁게 놀이하면서 종이의 소중함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곤충 탐험대

오전 간식을 다 먹은 유찬이는 창밖을 보다가 교사에게 이야기를 한다.

유찬: 선생님, 오늘 날씨가 진짜 좋죠?

교사: 그러네, 날씨가 좋은데, 우리 뭐 할까?

유찬: 날씨가 진짜 좋으니까, 바깥에 나가고 싶어요.

교사는 유찬이의 의견을 듣고 다른 유아들에게도 물어보니 모두 바깥놀이를 하자고 한다.

유아들은 태풍으로 인해 생긴 바깥 모래놀이터의 움푹 파인 곳을 따라 걷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한다.

유아들은 “태풍이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서로 감탄하며 말한다.

채연: 곤충 보러 가자.

시원: 곤충 탐험은 어때?

혜찬: 그럼 공원에 가자!

교사와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아들의 발걸음 속도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에 가기로 한다.

공원에서 유아들은 거미를 발견한다.

유아들: 어! 거미다!

교사: 곤충 탐험대의 첫 번째 곤충은 거미네.

민주: 그런데 이거는 무슨 거미지?

채연: 호랑거미인가?

교사: 아! 곤충 책에는 나와 있을 텐데.

시원: 어린이집에 가면 찾아보자!

유아들: 그래!

교사: 그러려면 우리가 거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해야겠는데.

교사의 말에 유아들은 거미를 보며 거미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유아들: 다리가 엄청 길어. 몸은 조금 노란색이고 다리는 검은색! 그냥 검은색 아니고 노란색 점박이 무늬가 있잖아!

거미줄에 큰 거미 세 마리가 있는 것을 유아들이 발견한다.

민주: 이게 엄마 거미고, 여기 전부 아기 거미다.

유아들이 아기 거미의 숫자를 센다.

혜찬: 그런데 누가 형아 거미이고, 누가 누나 거미지?

민주: 아까 저기서 봤던 게 아빠 거미, 여기가 엄마 거미랑 아기 거미야!

평가

태풍이 온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실내 놀이를 하려고 했으나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바깥놀이로 변경하였으며, 놀이 공간도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바깥놀이터에서 어린이집 근처 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이동한 공원에서 거미를 발견한 유아들은 곤충을 약간 징그러워하면서도 다들 열심히 관찰하고 탐구한다. 알고 있는 곤충의 특징과 비교하기도 하며 이름을 붙인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도 거미의 특징을 서로 말하며 기억하고 있었다. 보육실에 들어와 바로 곤충 책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기억하는 거미의 모습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4-2 보육과정 평가

유아들의 요구에 따라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는지, 유아들이 충분히 탐구하며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는지,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지원하는 자료(도서)를 적절히 제공하였는지 등의 보육과정 운영에 대해 유아의 표정, 말, 움직임 등을 살피며 평가하였다.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유아들이 거미를 관찰하며 나누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아들이 거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자신이 관찰한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며 배우고 있음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거미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책이나 영상 자료를 제공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례 4

1세 / 부모 상담

한 학기 동안 승민이(1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를 놀이 기록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하였다.

승민이는 학기 초에 적응이 어려웠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자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승민이는 끼적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시도하는 놀이를 좋아한다. 공놀이, 징검다리 건너기도 제법 잘한다. 집에서도 책 읽기를 좋아하는 승민이는 교실에서도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어달라고 하고 여러 번 읽기를 한다. 책을 읽으며 몸짓과 표정으로 자신이 이해한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안다. 친구가 놀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소리를 지를 때가 있는데, 이때 교사가 개입하여 승민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준다. 승민이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4-2 보육과정 평가

승민이가 한 학기 동안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지, 놀이 기록 등을 통해 영아의 성장을 기록하고 평가하였다. 영아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사의 지원 계획을 적어두었고, 부모 상담을 통해 이러한 승민이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였다.

4세 유아 평가를 담은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이다.

○○이는 여러 가지 블록을 활용해서 높게 쌓고, 길게 나열하여 물리적으로 자신만의 큰 공간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이 만든 작품 및 구조물에 애착을 보여 오래 두고 싶어 하며, 하나의 놀이를 지속하는 시간이 긴 편이다. 전반적으로 사람보다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나,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친구들과 함께 놀이 공간을 공유하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많아졌다.

△△이는 한번 구성물을 만들기 시작하면 삼십 분 이상 놀이를 지속하며 구성물이 무너지면 다시 쌓는 끈기와 집중력을 보인다. 친구가 하는 놀이에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하여 새로운 놀이를 창안해 내는 창의력을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로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며 놀이 후에는 스스로 자신이 사용한 놀잇감을 바르게 정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는 가족 놀이하는 것을 즐기며 친구와 어울려 함께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과 꾸미기를 좋아하며, 여러 가지 색깔로 사물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 말이 글자로 표현된다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놀이 상황에서 친숙한 단어를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섬세하고 집중력 있는 태도로 곤충을 관찰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친구에게 말 또는 몸짓으로 표현하거나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곤충의 모습을 만드는 것을 즐긴다. 교실에 있는 놀잇감을 탐색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놀이한다. 친구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는 먼저 다가가 도와준다.

◎◎이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에 도전하고 주변 사람과 긍정적 관계를 맺으며 즐겁게 생활한다. 퍼즐, 종이접기 등 소근육을 이용하는 놀이를 할 때 높은 집중력을 보이며, 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교사 및 또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어려움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주며 놀이에 참여한다. 뛰어난 어휘 구사력으로 자기 의사를 조리 있게 표현한다.

◇◇이는 언제나 즐겁게 생활을 하지만 놀이를 할 때에 또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참여하는 편이다. 학기 초에는 익숙한 것에 집중하며 새로운 일을 대할 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점차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특히 음악 감상하기, 음악에 맞춰 춤추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등을 즐기며 음악에 담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감성을 지니고 있다.

출처: 교육부(2020).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2 보육과정 평가

한 해 동안 유아의 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는지를 놀이 기록, 유아들의 작품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각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록하였다. 유아의 관심 변화, 유아의 특성,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기록하여 유아를 평가하였다.

이경이가 적응 행동의 목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4, 5월에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뜰 수 있었으나 바로 입으로 넣지 않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래서 숟가락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교사의 개입 정도가 높은 신체적인 촉진을 제공하였고, 손으로 밥풀을 만지작거리면 숟가락의 방향을 입으로 향하게 해 주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숟가락을 바르게 잡을 때는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7월 정도가 되니 교사의 도움 없이도 밥풀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바로 식사할 수 있었다. 8월까지의 목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경이의 한 학기 수행 정도를 평가한 평가서 일부 내용이다.

발달 및 영역별 목표		수행도 평가					
발달 영역	장기 목표	단기 목표	4월	5월	6월	7월	8월
		목표 행동					
적응 식사 행동	1.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1-1. 점심시간에 교사가 손에 숟가락을 바르게 쥐여 주면 5번 중 3번은 숟가락을 바르게 쥐고 밥을 먹을 수 있다.	△	△	△	○	
		1-2. 밥을 뜬 숟가락이 입으로 향할 수 있도록 교사가 방향을 잡아 주면 5번 중 3번은 밥을 바로 입 속으로 넣을 수 있다.	×	△	△	○	

발달 영역	종합평가 결과
적응 행동	[식사 기술]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뜰 수 있으나 바로 입으로 넣지 않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보여서 1학기 동안 식사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숟가락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교사가 신체적으로 촉진하고, 손으로 밥풀을 만지작거리면 숟가락의 방향을 입으로 향하게 해주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직 숟가락을 바르게 잡는 것에는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5번 중 3번 이상은 교사의 도움 없이도 밥풀을 손으로 만지지 않고 바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4-2 보육과정 평가

한 학기 동안 장애영유아의 수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이 포함된 보육일지의 누적된 평가를 통해 이경이의 개별화교육계획 진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고(월 평가/학기말 평가) 이경이의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이상 기록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경이의 놀이를 면밀하게 관찰했는지, 관심과 흥미에 따라 놀이를 지원하고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이경이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한 교수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일과 안에서 이경이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었는지도 성찰하였다. 그리고 이경이의 개별화교육계획 평가와 관련해서는 설정한 교육 목표에 도달해가는 정도를 학기말에 부모님과 공유하였다.



함께 생각해 보기

- 보육과정 운영 평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나요? 평가의 주기는 어떠한가요?
-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계획-실행’ 또는 ‘실행-계획’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나요?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운영에서 더 의미 있는 평가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위하여 어린이집 동료 교사와 협의를 하나요? 동료 교사들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평가를 하나요?
-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평가하는 영유아 평가를 위해 어떤 자료를 수집하나요?
- 보육일지의 놀이 기록과 영유아 평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보육과정 평가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육과정 운영 개선에 활용하고 있나요?
-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경우) 개별화교육계획 수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나요?



궁금해요

Q 입소한지 6개월 이상이나, 1년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에도 영유아 평가 기록이 연 2회 이상 있어야 하나요?

A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속에서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영유아 평가 기록은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원아를 대상으로 평정합니다. 이때, 입소 후 6개월이 경과했으나 1년 미만인 원아의 경우 연 1회 이상 영유아 평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영역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과 ‘4-2. 보육과정 평가’의 **바람직한 수준**



바람직한 수준

- 교사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에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하고, 계획-실행-평가가 순환되도록 보육과정을 실행하며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한다.

영역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개요

어린이집은 초·중등 교육기관에 비해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조직으로, 원장의 리더십이 보육교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이와 같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표준보육과정을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보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이루어야 하고, 각 가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양육의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역량을 발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각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을 관찰하면서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영역 구성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한 기관의 대표이자 운영의 주체인 원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주체로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표준보육과정과 운영철학, 영유아의 특성,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보육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총책임자인 원장은 영유아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질 높은 보육의 혜택을 함께 공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보육과정 운영의 주체로서 영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을 토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반별로 영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보육과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민감히 살펴 보면서 전체적인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한다.

한편 원장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를 위한 별도 공간, 교사 휴식을 위한 공간, 업무 지원을 위한 설비, 성인용 화장실을 갖추어 보육교사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 • 원장은 운영계획에 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 운영철학,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 보육교직원 시설·설비(교사실, 휴게 공간, 업무지원설비, 성인용 화장실)가 미비하다.	•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원장은 표준보육과정과 운영철학, 영유아의 특성,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배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어린이집 운영 총책임자로서 원장님의 철학과 신념은 무엇인가요?
- 원장님의 보육 철학 중 가장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 원장님의 철학과 신념은 어린이집 운영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나요?
-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면담 사례

Q 어린이집 운영 총책임자로서 원장님의 철학과 신념은 무엇인가요?

A 표준보육과정의 일반 원칙을 기계적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원장인 내가 우리 어린이집을 왜 운영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판단이 됩니다. 이 일이 그저 생계 수단인지, 아이들을 사랑해서인지,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함인지 등등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요. 제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는 아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A 우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아동 존중을 기본으로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개인차를 인정하고, 영유아를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며 영유아의 잠재력을 신뢰하는 것에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성장과 행복에 관심을 두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원장은 표준보육과정과 운영철학, 영유아의 특성,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하나요?
-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나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중 기관 운영 개선을 위해 반영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 연간 보육계획을 작성할 때 전년도 운영평가를 반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면담 사례

Q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수립하나요?

A 우리 어린이집은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인 ‘더불어 사는 사람’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속한 지역 사회 내 나눔 활동(우리를 도와주는 이웃에게 선물하기, 불우 이웃 돕기, 노인정 방문하기, 환경 마켓을 통한 환경 기금 기부하기 등)을 계획하고,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3개년 다문화 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 여러 해 원장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한 해의 연말은 교직원 이동, 아이들의 졸업이나 입학 준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교사 상담의 시기가 모두 다 중복되어 효율적인 보육계획 수립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것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연간 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해서 다음 해 보육과정 운영계획을 연말이 아니라 한 해의 중반기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평가하여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운영, 보육프로그램, 영양·건강·안전, 교직원, 부모 및 가족 지원 등 5개 영역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 운영계획에 반영합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배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함께 생각해 보기

-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 보완한 설비나 설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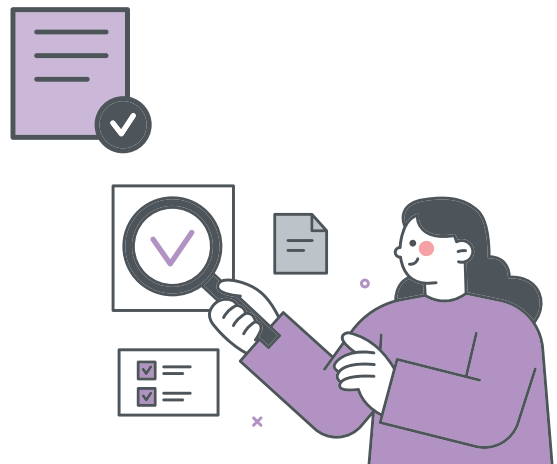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원장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사가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를 배려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영유아 활동공간이 아닌 실내 공간에 교사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유아, 보육교직원, 학부모 구성원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일상적으로 보육교직원 간에 또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며, 가정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기관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로 대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을 정식 명칭으로 부르고 존대하며, 개별적인 호칭이나 반말을 하여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격려하며 칭찬하고,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면서 이를 기관 운영에 반영한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책임자로서의 입장과 생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사 회의나 면담 등을 개최하여 의사표현의 기회를 마련한다. 나아가 협력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쓴다.

어린이집과 각 가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위해 공동양육자로서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가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영유아를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원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 가정의 학부모와 일관성 있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한다.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 원장의 결정이 우선시된다. • 가정과의 소통 방법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다.	• 보육교직원은 상호 존중한다. •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 어린이집은 가정과 원활하게 소통한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원장님으로서 보육교직원을 존중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 보육교직원의 반 운영이나 업무태도 등에 대해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나요?
- 선생님과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이 교직원이 느끼는 어려움을 민감히 파악하고 반응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면담 사례

Q 원장님으로서 선생님을 존중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A 교사가 보육계획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고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진행되는 박람회나 전시회가 있는 경우, 원장만 다녀오고 선생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기보다 선생님이 직접 방문할 기회를 주고 탐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 선생님들이 평소 원장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존댓말 사용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어린이집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정이 좀 느리더라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내 의견이 존중된다는 경험을 갖게 되면 선생님들은 많은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런 과정에서 풍선아트, 캘리그래피 제작 등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겨 교육을 희망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에 참여해 보는 작은 경험이 선생님들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고 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Q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에게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A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매번 어렵고 고민이 많은 경력교사입니다. 다행히 저희 원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자체 교사 모임을 가지고 각 반의 놀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놀이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나누고 있어요. 이때 원장님도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끝까지 경청하면서 저희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려 애쓰세요.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나누라고 간식도 준비하시고 놀이에 대한 동영상 자료도 소개하시고요. 또 우리 교사들이 요청하는 놀이자료 구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세요. 특히 경력자인 제가 놀이 고민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등 격려의 반응을 보여 주셔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A 지자체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데, 성인이 있는 교사실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원장님은 아이들이 중요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기 청정기와 가습기를 교사실에 구입해 주셨어요.

A 저희 원장님은 출근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관심을 보여주세요. 간혹 변화된 외모, 예를 들어 머리를 살짝 다른 색으로 염색했을 때 잘 어울린다고 알아봐 주시고,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 책이나 머리핀 같은 선물도 주시고요. 그런 행감을 받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기분 좋은 생각이 들어요.



함께 생각해 보기

- 원장님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 원장님으로서 보육교직원이 느끼는 고민이나 향후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면담을 실시 하나요? 면담을 실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이 보육과정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때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 선생님 입장에서 원장님과의 면담은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나요?



면담 사례

Q 원장님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A 우리 어린이집은 의사결정 과정에 교직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직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찬반 토론, 붙임쪽지를 활용한 의견 제시, 무기명 투표 등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외에 반 행사나 교직원 행사의 일정, 장소 등을 결정할 때 일상적으로 교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를 운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안을 반영한 예로는 교직원들이 오후 통합보육 당직으로 인해 힘든 점을 토로하여 보조교사를 채용하고, 시차출근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A 기본적으로는 학기별로 교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중요한 운영 사항이나 일정 등을 결정할 때 교사회의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시급하여 주임교사 등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경우에는, 추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그 과정과 결정에 대해 모든 교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면담(연 2회 이상)을 통해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나요?
- 가정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근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 중 수용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상적으로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보와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면담 사례

Q 가정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근 학부모가 제시한 의견 중 수용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A 우리 어린이집은 도시락 식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부모님들이 퇴근 후 도시락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대표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식판 설거지 전용 식기세척기를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건조가 안된 식판 때문에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식판을 관리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A 우리 어린이집은 현재 종이 수첩 형태의 알림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간소화 및 젊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앱을 활용한 온라인 알림장 사용을 고려해 보았으나, 우리 학부모들 대부분이 종이 수첩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직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Q 학부모 면담 시,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없을 경우, 부모 면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 어린이집에서는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개별면담을 통해 영유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대면면담이 원칙이나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할 수 없어 대면면담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은 놀이 지원을 통한 원활한 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이는 영유아의 흥미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놀이를 관찰하며 영유아의 놀이가 의미 있게 지속되고 관심에 따라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놀이는 사전에 교사에 의해 계획되어 진행되는 활동과 구분되기 때문에 교사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원을 위한 관찰, 기록 그리고 놀이 상황에 적절히 개입하여 상호작용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보육과정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원장은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를 비롯하여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경력과 직무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보수교육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사의 역량 증진을 위해 원장은 교사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한편 일상적인 일과 중 나타나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교사의 수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피드백하여 교사가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자신감을 가지고 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영유아에게 양질의 배움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부적절한 수준	적절한 수준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직무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 원장은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 원장은 교사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관찰하고 지원한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원장님은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나요?
-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직무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나요?
- 원장님은 개별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나요?
-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교육 참여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길 때 어떻게 지원하나요?

면담 사례

Q 원장님은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나요?

A 교사 임용을 하면 먼저 보수교육 점검부터 합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주제(예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나 놀이 발달, 영유아 행동 지도, 놀이 상호작용, 일지 작성 등) 중 선생님이 희망하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희망자가 많은 교육, 희망자가 적은 교육에 대해서는 순서를 정하여 공평하게 돌아가며 받는 방법도 병행하고, 교육 후에는 전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A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필요한 것과 희망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동기 부여는 본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을 종합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필요한 내용의 보육교직원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합니다.

Q 원장님은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직무교육과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A 유관 기관에서 주최하는 학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보육과정이나 아동 발달, 상호작용 등의 외부 교육이 있을 경우 수시로 안내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주기적으로 놀이 중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보육과정 워크숍'을 실시하는데, 지난달에는 영아 놀이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A 우리 아이들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교사가 먼저 다양한 문화 예술적 경험을 통해 심미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역량 증진 프로그램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둘러보도록 하였습니다. 당장 보육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교사는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사들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참여를 독려하는 편입니다.

A 선생님들의 교육 참여도 중요하지만 원장인제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 교사들의 운영 방향성을 잘 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연수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영유아 놀이 중심 보육과정 관련한 원장교육 등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주의한 지도의 사례 중심 교육에도 참여했구요. 교육 받은 내용에 기반하여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과정 운영을 직접 또는 보육일지를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원장이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궁금해요

Q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을 어린이집 자체교육으로 실시해도 되나요?

A 어린이집 원장은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직무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은 어린이집 자체교육, 학회, 워크숍,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의 외부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교육 실시 후 실행기록에는 교육명, 일시, 장소, 참석자,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교사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관찰하고 지원한다.



함께 생각해 보기

- 원장님은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하고 지원하나요?
- 원장님은 일상생활이나 놀이 관찰 결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 원장님은 교사 상호작용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Q 원장님은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하고 지원하나요?

A 보통 교사의 상호작용 관찰 지원 계획은 학기 초에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오전 실내 놀이 시간에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이 있을 것이라 미리 예고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여 안내합니다. 보육과정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이 꼭 필요하고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해야 하는 순간을 포함하여 일정 부분 훈육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것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선생님과 의논합니다.

A 원장이 직접 관찰하고 피드백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께 도움을 청할 때도 있어요. 관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 교사 스스로 본인의 대화나 목소리 톤을 녹음하거나 상호작용 장면을 녹화해서 교사들끼리 자체 장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불어 어린이집 내 교직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원장은 잘 관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원장이 반드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관찰 당일에는 그날의 놀이 맥락과 흐름 등을 파악하며 관찰합니다. 이때 교사 간 팀티칭이나 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개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내용을 자세히 듣고 파악하고자 애씁니다. 또한 반 전체 영유아의 상태와 움직임 등을 교사가 파악하고 주시하는지 확인합니다. 관찰이 용이한 자리에 앉고, 조용히 옮겨 다니면서 영역 내 상호작용을 자세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관찰 이후 보통은 당일 낮잠 시간을 이용해 피드백을 바로 실시하고 피드백 후 해당 내용이 환경 정비 및 보육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장학 결과가 질 높은 보육과정 실행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원장의 장학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장학의 중요성과 의미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일시에 장학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역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의 **바람직한 수준**



바람직한 수준

-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작용 관찰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영역 6



건강 및 안전



개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요건이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은 일차적으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되는 것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유아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임, 학대 등의 문제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여 영유아의 면역력을 키우고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풍부한 식재료로 청결하게 조리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 어린이집의 일과 중에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영역 구성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영유아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실의 공간과 시설·설비, 물품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하므로 영유아가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하루 일과를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실내 공간에 해당하는 현관, 복도·계단, 교사실과 자료실, 식당, 창고 등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어린이집 출입구, 바깥놀이터, 옥상놀이터, 화단 등 어린이집의 실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영유아가 신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돈되고 쾌적한 실외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장실과 세면대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수건 등 비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영유아가 배변 및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영유아의 개별 특성과 요구에 따라 화장실, 이동식 변기, 기저귀 갈이대 등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데 각 공간이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도록 한다.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적절한 수준

1. 보육실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 ① 보육실을 청결하고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② 보육실 내의 놀잇감, 개별 침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2.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 ① 보육실을 제외한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② 실내외 공간의 놀이기구, 놀잇감 등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③ 화장실(이동식 변기, 기저귀 가는 공간 포함)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함 께 살 펴 보 기

- 보육실이 청결한가요?
- 보육실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자주 열고 환기하나요?
- 보육실 내의 놀이기구, 놀잇감과 활동자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 (영아의 경우) 입에 넣고 빨기 쉬운 영아용 놀잇감은 사용 후 별도 바구니에 보관하고 매일 세척하여 청결하게 유지하나요?
- 영유아의 개별 침구는 주기적으로 가정에 보내 세탁하도록 안내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나요?



궁금해요

Q 모든 영유아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침구를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모든 영유아(쌍둥이 포함)가 각자 개별 요, 이불, 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령, 동일한 모양이나 색상의 침구가 있다면 원아별로 구분된 표시를 하여 사용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준비해둔 공용 침구의 경우 서로 다른 영유아에게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놀이 매트에서 영유아가 휴식을 취하거나 놀이 중 잠시 잠들 수는 있으나 놀이 매트를 영유아의 전용 침구로 사용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함 께 살 펴 보 기

- 보육실 외 실내 공간(공동놀이실, 식당 등)이 청결한가요?
- 공동놀이실, 식당 등 실내 공간에 비치된 놀이기구,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 등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 어린이집 출입구, 바깥놀이터, 옥상놀이터, 화단 등 실외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 실외 고정식 놀이기구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하며, 실외 공간에 비치된 놀이기구,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 등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화장실(이동식변기, 기저귀 가는 공간 포함)]

- 화장실이 청결한가요?
- 설비·비품(변기, 휴지통, 수건 등)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 변기의 경우 사용할 때마다 즉시 물을 내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나요?
- 이동식 변기도 사용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나요?
- (영아의 경우) 기저귀 가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궁 금 해 요

Q 기저귀 가는 공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A**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화장실 등)을 마련하여 해당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합니다. 개별 영아나 장애영아의 기저귀 갈이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기저귀 갈이대를 닦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기저귀 갈이대 위에 별도의 깔개를 사용할 경우, 기저귀를 갈 때마다 깔개를 교체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자주 비워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기저귀 갈이대는 일과 중 영아가 밟고 다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영유아기는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어린이집에서는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질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여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이루고, 면역력을 키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에서의 급·간식 시간을 즐겁게 경험함으로써 하루의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얻으며, 좋은 신체 여건을 유지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일과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식자재의 구매 및 보관, 조리 공간과 비품, 조리 과정, 배식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신선한 식자재를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배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이를 위해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하여 육안으로 검수한 후 밀봉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실온 보관하거나, 냉장·냉동 보관하여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조리 공간과 조리실 내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등)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조리 비품(조리 도구, 행주 등)과 식기류(식기, 컵, 수저 등)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조리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청결한 복장을 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한다. 이를 위해 식재료 준비 작업, 전처리 작업, 조리 과정이 단계별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리된 음식이 영유아에게 위생적으로 배식될 수 있도록 한다. 배식을 담당하는 성인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식탁을 청결하게 닦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식판에 조리된 음식이 위생적으로 배식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유아의 마실 물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한다.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적절한 수준

1. 신선한 식자재 구매,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② 신선한 식자재 구매 및 보관 과정에서 유통기한(소비기한)을 준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2. 조리실의 공간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① 조리실 공간 및 조리실 내 시설·설비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② 조리실 비품과 식기류를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③ 도마와 칼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3.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①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다.
- ② 조리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배식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신선한 식자재 구매,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함께 살펴보기

- 식자재 보관 장소(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포함)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나요?
- 신선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나요?
- 식자재의 구매 및 보관 과정에서 유통기한(소비기한)을 준수하나요?



궁금해요

Q 어린이집 내의 식품(식자재 등) 중 유통기한(소비기한) 평정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유통기한(소비기한) 평정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소비기한)이 표기된 모든 (수입) 식품
- 개인 용도의 식자재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평정 대상에 포함
-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식품에 한함)과 커피는 제외
- 유치원, 복지관 등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조리실 내 모든 식자재(유치원용, 복지관용 등)가 평정 대상에 포함

조리실의 공간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함께 살펴보기

- 조리실이 청결한가요?
- 조리실에서는 작업 후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나요?
- 조리실의 창문 및 실외로 직접 연결된 모든 문은 방충망이 부착되어 있고 파손 없이 깨끗한가요?
- 조리실의 시설·설비(개수대, 조리대, 가스레인지, 수납장 등), 주방 가전(전기밥솥 등 소형 가전)은 표면과 내부에 찌든 때나 이물질이 없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나요?
- 조리실 비품(조리 도구, 행주 등)과 식기류(컵 등)를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나요?
- 도마와 칼은 교차 오염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나요?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함께 살펴보기

[조리과정]

-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나요?
- 식재료의 세척과 절단 등 전처리 작업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나요?
- 조리 중(전처리 작업 포함)이거나 조리된 후 식품을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맛보기는 별도 손가락을 사용하나요?

[배식과정]

- 급·간식 전후로 청결한 행주를 사용하여 식탁(책상)을 닦나요?
- 배식 시 영유아 개인별 식기를 사용하나요?
- 배식 시 음식별로 위생적인 개별 배식 도구(집게, 가위 등)를 사용하나요?
- 영유아가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보육실 또는 층별로 마실 물과 물 컵을 제공하나요?



Q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의 복장은 어떠해야 하나요?

A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조리원, 조리 업무를 하는 원장 등)은 전용 앞치마(또는 위생복), 전용 머릿수건(또는 위생모), 조리실 전용 신발(또는 위생화)이나 덧신을 착용합니다. 조리실 전용 신발이나 덧신은 조리실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다만, 실내 공간과 조리 공간의 바닥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데울 때도 반드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하나요?

A 급·간식 조리 시에도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을 데우는 것도 조리 과정에 해당하므로 앞치마와 머릿수건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Q 개별 배식 도구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배식하는 음식별로 개별 배식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때, 맨손이나 사용하던 젓가락·포크 등으로 음식을 배식하지 않으며, 하나의 집게나 가위로 여러 음식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Q 마실 물을 반드시 보육실에 비치해야 하나요?

A 영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영유아의 활동 공간에 마실 물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실 안, 복도(보육실이 위치한 층별로) 등 영유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물과 물컵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영유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움직임이 크지만 위험 요소를 미리 알아차리거나 안전하게 행동하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물리적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영유아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안전한 환경은 영유아로 하여금 놀이와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욕구와 호기심에 따라 마음껏 탐색하고 궁금한 문제를 탐구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어린이집의 출입구, 실내 모든 공간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살피고, 실내외 공간의 모든 고정식 시설·설비와 이동식 시설·설비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안전하게 보수한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놀잇감과 활동자료, 놀이기구도 안전하게 관리한다. 실내외 모든 놀잇감 및 활동자료, 보관함 등에 파손이 없는지 살피고, 필요시 폐기하거나 수리·보완한다. 바깥놀이터 등의 실외 공간도 위험 요인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보수한다. 영유아가 사용하는 도구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 중에 영유아에게 상처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을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한다.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모든 영유아가 신속히 보호받으며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설비를 상시 유지·관리한다. 이를 위해 경보 시설·소화 시설·대피 시설 등의 비상 시설·설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평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한다.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적절한 수준

1.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 및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① 어린이집 대문과 현관문에는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② 2층 이상의 창문에는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 ③ 가구 및 설비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 ④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 적재물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 ⑤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놀잇감, 놀이기구,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① 영유아의 놀잇감의 형태와 크기, 재질 등이 안전하다.
- ② 영유아의 놀이기구(고정식 놀이기구, 볼풀장 등)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다.
- ③ 위험한 물건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3. 비상사태용 시설·설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① 경보시설·소화시설·대피시설 등의 비상시설·설비가 항상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② 모든 보육교직원은 비상시설·설비의 위치와 실제 사용법을 알고 있다.



함 께 살 펴 보 기

- 어린이집 대문과 현관문에는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나요?
-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인 2층 이상의 창문에는 영유아의 추락 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 책상, 의자, 놀이자료장 등의 가구 및 설비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에어컨 실외기 등)나 적재물(목재 더미, 파손된 가구 등)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나요?
-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하나요?



궁금해요

Q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장실, 교사실, 자료실 등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출입하지 않도록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 관리합니다. 조리실, 보일러실, 자료실, 덤웨이터(식자재, 음식 등의 운반용 소형 승강기) 등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문, 분리막 등을 닫아 영유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어린이집 구조상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합니다.



함 께 살 펴 보 기

- 영유아의 놀잇감과 활동자료의 형태와 크기, 재질 등이 안전한가요?
- (0, 1세 반의 경우) 영아가 삼킬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놀잇감이나 활동자료를 유의하여 관리하나요?
- 실내외 놀이터(공동놀이실 포함)의 놀이기구(고정식 놀이 기구, 볼풀장 등)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나요?
-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며, 영유아의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를 사용하나요?



궁금해요

Q 어린이집에서 관리에 유의해야 할 위험한 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영유아가 만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칼, 성인용 가위, 송곳 등 작업 시 자르거나 찌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
- 강력접착제, 살충제, 방향제, 각종 스프레이
- 화장실 내 각종 세제
- 약품(비상 약품, 투약을 위해 영유아가 가져온 약 등)
- 전기 포트, 밥솥 등 영유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물건
- (0, 1세 반) 직경 3.5cm 이하 작은 크기의 물건 등



함 께 살 펴 보 기

- 경보 시설·소화 시설·대피 시설 등의 비상 시설·설비가 항상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모든 보육교직원은 비상 시설·설비의 위치와 실제 사용법을 알고 있나요?

🔔 경보 시설

-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나요?
- 설치된 모든 가스누설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원이 켜져 있나요?

🔥 소화 시설

- 각 층에 분말 소화기가 갖춰져 있나요?
- 모든 소화기는 안전핀이 고정되어 있고, 소방약제가 충분하며, 압력이 정상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 대피 시설

- 설치된 모든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나요?
-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인가요?
-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는 적재물이나 위험한 물건 등이 없어 비상시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나요?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어린이집에서는 등원부터 하원까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영유아는 성인의 안전한 보호 하에서 어린이집 일과를 즐겁게 경험하고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

영유아가 책임 있는 성인의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일과 중 영유아가 일상생활과 놀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혹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보육교직원에게 신속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보육교직원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비상시에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 비상시 지침에 따른 자신의 업무를 숙지하고 필요시 지침에 따라 원활하게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 운행 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적절한 수준

1. 일과 중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①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 출석과 귀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한다.
- ③ 교사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한다.
- ④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2.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행한다.
- ② 보육교직원은 비상시 지침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숙지하고 실행한다.
- ③ 모든 영유아에게는 비상시 피난 대피를 도울 보육교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 ①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한다.
- ②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을 출발시킨다.
- ③ 운전자와 차량에 함께 탄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전 좌석을 확인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차한다.



함께 살펴보기

-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 출석과 귀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선생님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하나요?
- 선생님은 등·하원 지도, 휴게 시간 사용 등을 위해 일정 시간 이상 활동 공간에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원장님이나 다른 선생님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우나요?
- 선생님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나요?
- 선생님은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나요?
- 영유아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멍, 상처 등 신체적 상흔, 무단결석, 명확한 사유 없이 퇴소 신청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궁금해요

Q 영아에게는 의도적인 대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의 경우에도 대집단 활동으로 실시하면 안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의 내용, 방법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 특성상 대집단 활동이나 교사 주도형 활동보다는 영아의 개별적 요구,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쌓기 영역에 횡단보도를 구성한 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아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일과 중 영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놀이, 동화,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 선생님은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행하나요?
- 보육교직원은 비상시 지침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숙지하고 실행하나요?
- 비상시 모든 영유아의 피난 대피를 도울 보육교직원이 지정되어 있나요?



궁금해요

Q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의 참고문헌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4권)-건강·환경·위생·급식』,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부상유형별 예방 및 대응』,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1.
- 『내 손 안에 상황별 응급처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3.

Q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갑자기 열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나 문자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해열제를 먹여도 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해열제 투약과 관련된 사항을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에 포함하고, 보호자의 투약요청(투약 동의) 의사 확인(유선, 문자, SNS 등) 또는 투약의뢰서를 확인하여 해열제 투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치 후에는 스마트알림장, 대화수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약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함께 살펴보기

- 운전자와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나요?
- 차량에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보육교사 등)이 동승하나요?
-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을 출발시키나요?
- 차량 내 어린이 보호장구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의 체중 범위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 운전자와 차량에 함께 탄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전 좌석을 확인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차하나요?



궁금해요

Q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구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구 사용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 인증(KC)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보호장구마다 안전 인증 마크와 인증 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모든 보호장구는 장착 방법을 준수(2점식 안전벨트, 3점식 안전벨트, 등받이 고정 등)하여 장착함.
-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영아의 체중 범위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검사기준(W1, W2 또는 0그룹, 0+그룹, I그룹)을 선택·사용하여야 함.

※ 아래 참고문헌에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구에 대한 지침과 사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3권)-통학 차량과 등·하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9.
- 『어린이집 안전관리컨설팅 사례집(소방 및 통학 차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20.

부록

영역 1.

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 부적절한 수준

- | 관찰 | •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실내외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 | 관찰 | • 하루 일과 운영 시간이 언제나 동일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다.
- | 관찰 | •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사가 임의로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 적절한 수준

- | 관찰, 면담 | •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 | 관찰, 면담 | •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신체 리듬,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루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 관찰 | • 개별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의사표현을 존중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한다.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교사는 개별 영유아의 요구와 신체 리듬에 맞추어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식사와 간식 시간에 영유아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유아의 배변 경험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영유아의 개별 특성에 맞추어 편안하게 자거나 휴식하도록 지원하며, 따뜻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한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지키도록 격려한다.

🔍 부적절한 수준

- | 관찰 |** • 영유아가 등원하였는지 관심이 없거나 영유아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원 시에는 영유아의 하원 준비를 재촉한다.
- | 관찰 |** • 식사와 간식 시간에 음식을 강요하거나, 남기지 않게 하거나, 지나치게 조용히 먹게 하거나, 식사 예절을 강요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에 맞추어 먹도록 재촉하고 위협한다.
- | 관찰 |** •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하여 화장실을 가도록 강요한다. 또는 배변 처리 시 영유아에게 불쾌함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 | 관찰 |** •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휴식(낮잠)하기, 개별 영유아의 요구와 상관없이 휴식(낮잠)을 강제하기 등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유아의 휴식(낮잠)시간을 운영한다.
- | 관찰 |** •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약속과 규칙을 교사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적용한다.

✨ 적절한 수준

- | 관찰 |** •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에는 안정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영유아가 귀가하도록 한다.
- | 관찰 |** • 식사와 간식 시간에 영유아가 서두르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관찰 |** •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 | 관찰 |** • 영유아가 개별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자거나 휴식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한다.
- | 관찰 |** • 영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최소한의 약속과 규칙을 공유하고, 영유아가 지키도록 격려한다.

영역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영유아의 놀이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놀이가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제공한다. 영유아가 실내외에서 자연 및 계절, 날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마련한다.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보육실이나 복도, 실외 공간 등을 구성한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공간 및 시설, 적합한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고, 장애영유아가 일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 활동 참여, 의사소통 등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한다.

🔍 부적절한 수준

| 관찰 | • 정해진 영역의 성격에 맞게 놀이하도록 강요한다.

| 관찰 | • 서로의 놀이에 방해를 받아 영유아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간을 재배치하지 않는다.

| 관찰 | •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관찰, 면담 | •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 발달수준에 적절한 시설,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적절한 수준

| 관찰, 면담 | • 영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 및 재구성한다.

| 관찰 | • 영유아가 실내외에서 자연 및 계절, 날씨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관찰 | • 영유아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의 놀이 혹은 활동에 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실내외 공간을 구성한다.

| 관찰, 면담 | • 장애영유아의 장애 유형과 특성, 발달수준에 적절한 시설, 보조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다.*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하여 평정

2-2. 배움을 위한 자료 제공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자료, 영유아의 놀이와 연계한 자료,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영유아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부적절한 수준

| 관찰 | • 영유아가 놀이 및 활동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쉽게 꺼내어 사용하기 어렵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담긴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있다.

✨ 적절한 수준

| 관찰 | •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매력적인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의 다름을 존중하는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한다.

| 관찰 | • 영유아가 놀이 및 활동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역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교사는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반응하며 영유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경험이나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존중한다.

🔍 부적절한 수준

| 관찰 | • 영유아가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 관찰 | • 영유아의 놀이를 강제로 멈추거나 놀잇감을 치운다.

| 관찰 | • 전체 교실의 영유아를 살피지 않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 관찰 | •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무시한다.

✨ 적절한 수준

| 관찰 | • 영유아의 비언어적·언어적 표현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관찰 | • 영유아의 놀이를 기다리고 지켜보며 지원한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와 함께 놀이하며 경험이나 배움을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관찰 | • 영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존중한다.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교사는 영유아들이 서로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 또래 간에 소통을 통한 경험 또는 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영유아가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㉓ 부적절한 수준

| 관찰 | • 영유아의 자유로운 대화가 허락되지 않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 적절한 수준

| 관찰 | • 영유아들이 서로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관찰 | • 영유아 또래 간에 경험 또는 배움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관찰 | •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관찰, 면담 | • 영유아 간 다툼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역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4-1. 관찰 및 실행 계획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5세 유아의 경우,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 혹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다양한 교육 진단을 통해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과 장애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놀이, 일상생활, 활동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찰하여 기록한다.

🔍 부적절한 수준

| 기록 | •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실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관찰, 면담 | • (5세 유아)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 혹은 활동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다.

| 기록 | •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 관찰, 기록, 면담 | • 개별화교육계획이 포함된 보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장애 유형 및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하지 않는다.*

✨ 적절한 수준

| 관찰, 기록 | •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한다.

| 관찰, 기록, 면담 | •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기록한다.

| 관찰, 기록, 면담 | • (5세 유아)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지원하기 위한 놀이 혹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관찰, 기록, 면담 | • 다양한 교육 진단을 통해 발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 및 특성,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실행한다.*

*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4-2. 보육과정 평가

표준보육과정의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에 관한 개별 평가는 관찰 기록 등을 누적 수집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는 보육과정 운영 개선, 실행 계획 수립, 영유아 이해,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한다.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에 대한 평가는 연 2회 이상 다양한 교육 진단과 일상적인 놀이 관찰 기록 등을 수집하여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단계 목표 수립, 지원 방법,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부적절한 수준	✨ 적절한 수준
 기록, 면담 •보육과정 운영 평가를 하지 않으며, 계획되어 있지 않다.	 기록, 면담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록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기록 •관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면담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	 기록 - 장애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진단과 일상적인 놀이 관찰 기록 등을 수집하여 연 2회 이상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한다.*
	 면담 •보육과정 운영 평가와 영유아 평가 결과는 보육과정 운영 개선, 실행 계획 수립, 영유아 이해,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한다.
	 면담 - 장애영유아 평가 결과는 다음 학기 개별화교육 계획수립, 장애영유아 지원 방법 및 부모 면담 등에 활용한다.*

*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정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 바람직한 수준
 관찰, 기록, 면담 •교사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에서 영유아의 경험이나 배움을 기록하고, 계획-실행-평가 순환 되도록 보육과정을 실행하며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한다.

📝 검토 문서

보육일지(놀이기록 포함)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개월 전 기록부터 확인
월간 또는 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개월 전 기록부터 확인
영유아 평가 기록(연 2회)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기록 * 대상: 어린이집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
장애영유아 개별화교육계획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개월 전 기록부터 확인

영역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부적절한 수준

| 면담 | •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다.

| 기록, 면담 | • 원장은 운영계획에 표준보육과정, 어린이집 운영철학,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 관찰 | • 보육교직원 시설·설비(교사실, 휴게 공간, 업무 지원설비, 성인용 화장실)가 미비하다.

✳ 적절한 수준

| 면담 | •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기록, 면담 | • 원장은 표준보육과정과 운영철학, 영유아의 특성,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관찰 | •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배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부적절한 수준

| 관찰, 면담 | •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 면담 | •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 원장의 결정이 우선시된다.

| 기록, 면담 | • 가정과의 소통 방법이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다.

✳ 적절한 수준

| 관찰, 면담 | • 보육교직원은 상호 존중한다.

| 면담 | • 보육교직원의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 기록, 면담 | • 어린이집은 가정과 원활하게 소통한다.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부적절한 수준

[기록, 면담]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직무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기록, 면담] • 원장은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적절한 수준

[기록, 면담]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역량 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기록, 면담] • 원장은 교사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관찰하고 지원한다.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바람직한 수준

[기록, 면담] •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역량 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작용 관찰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검토 문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 검토기간: 당해 연도

연간 보육계획안

• 검토기간: 당해 연도

부모 개별면담 기록 (연 2회)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기록
* 작성내용: 실시 일시, 대상 및 면담자, 면담 내용

교육 관련 기록

보육교직원 역량 계발 교육 관련 기록(이수증, 수료증, 교육실행기록 등)

• 대상: 원장, 담임교사
• 내용: 영유아 발달,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기록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이수증

(수료증 사본 또는 이수확인증,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경력증명서 등)

• 대상: 원장,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직무교육 실시

담임교사 상호작용 관찰 및 지원 기록(연 1회)

• 대상: 3개월 이상 근속한 담임교사
• 검토기간: 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기록
* 작성내용: 일시, 관찰자, 관찰내용, 평가, 지원내용

영역 6.

건강 및 안전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적절한 수준

| 관찰 | • 1. 보육실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 ① 보육실을 청결하고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② 보육실 내의 놀잇감, 개별 침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관찰 | • 2.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 ① 보육실을 제외한 실내외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② 실내외 공간의 놀이기구, 놀잇감 등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③ 화장실(이동식 변기, 기저귀 가는 공간 포함)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한다.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적절한 수준

| 관찰 | • 1. 신선한 식자재 구매,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① 식자재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② 신선한 식자재 구매 및 보관 과정에서 유통기한(소비기한)을 준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 관찰 | • 2. 조리실의 공간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① 조리실 공간 및 조리실 내 시설·설비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 ② 조리실 비품과 식기류를 사용 후 세척,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③ 도마와 같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최소한 육류용, 어패류용, 기타 채소류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관찰 | • 3.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① 조리를 하는 보육교직원은 조리 시 청결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고 있다.
- ② 조리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배식 과정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적절한 수준

| 관찰 | • 1. 보육실과 실내외 공간 및 시설·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① 어린이집 대문과 현관문에는 개폐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② 2층 이상의 창문에는 창문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 ③ 가구 및 설비는 파손된 곳이 없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 보호대가 설치되어 있다.
- ④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설비, 적재물은 영유아 활동 공간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 ⑤ 영유아가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실내외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관찰 | • 2. 놀잇감, 놀이기구, 위험한 물건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① 영유아의 놀잇감의 형태와 크기, 재질 등이 안전하다.
- ② 영유아의 놀이기구(고정식 놀이기구, 볼풀장 등)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된 곳이 없다.
- ③ 위험한 물건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 관찰, 면담 | • 3. 비상사태용 시설·설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① 경보시설·소화시설·대피시설 등의 비상시설·설비가 항상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② 모든 보육교직원들은 비상시설·설비의 위치와 실제 사용법을 알고 있다.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적절한 수준

| 관찰, 면담 | • 1. 일과 중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①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어린이집 지침에 따라 출석과 귀가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② 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항상 전체 상황을 주시하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전체 영유아를 확인한다.
- ③ 교사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한다.
- ④ 교사는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 관찰, 면담 | • 2.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실행한다.
- ② 보육교직원은 비상시 지침에 따른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숙지하고 실행한다.
- ③ 모든 영유아에게는 비상시 피난 대피를 도울 보육교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 관찰 | • 3.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한다.

- ① 운전자 외에 책임 있는 성인(원장, 교사 등)이 동승한다.
- ② 차량에 동승한 성인(교사 등)과 모든 영유아가 개별 안전띠(또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차량을 출발시킨다.
- ③ 운전자와 차량에 함께 탄 성인(교사 등)은 마지막에 모든 영유아가 차에서 내렸는지 전 좌석을 확인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차한다.



MEMO



MEMO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5. 2.)

펴낸날	2025년 2월
발행인	한국보육진흥원장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화 1661-5666(代))
디자인	유월애 (전화 02-859-2278)
인쇄처	사)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전화 042-631-5656)
ISBN	978-89-98842-93-2

*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2024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2025. 2.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